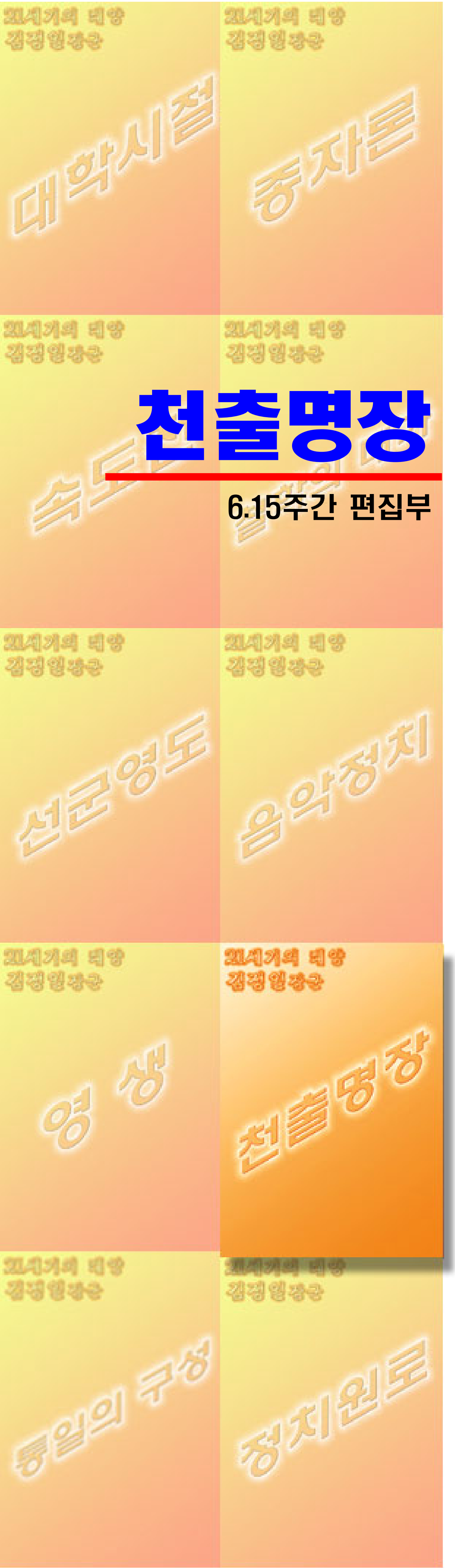
21세기 태양

8

천출명장



6.15주간 편집부



천출명장

6.15주간 편집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 지고 있는 장엄한 력사적 시기에 맞이하는 조선로동당 창당 55돐에 즈음하여 주체의 당의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다함없는 경모와충성의 한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 온 55성상은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들을 넘고넘으며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 온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누구도 걸어 보지 못한 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여 조선로동당을 자주성이 강한 필승불패의 위대한 당으로, 령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일찌기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성한 투지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다 바치시여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은 영광찬란한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여 오신 주체의 당의 자랑찬 력사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수십여성상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주체의 당건설로선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위업을 수령의 영생위업으로 되게하신것은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위훈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특기할 기념비입니다.

위대한 정치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전당에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순결성과 조직적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필승불패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전투적인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더우기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무적강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공세를 쳐물리치시며 세계정치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없는 선군혁명의 새 력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 지고 주체조선은 자주의 강국으로 거연히 솟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가장 엄혹하고 간고한 20세기 시련의 시기를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헤치시며 주체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로동당의 력사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력사로 영원히 흐르게 하신것은 오직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오늘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 일으켜 **김정일**결사옹위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고 창당 55돐을 주체사상의 승리로 20세기를 결속하는 력사적인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임으로써 21세기에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한 앞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조국통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구상을 펼치시며 온 겨레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 일으키시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머니당의 품에 뜨겁게 안아 주신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위력과 활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이며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령수로 높이 모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종말론≫은 격파분쇄되고 주체사회주의는 자주와 평화, 진보와 번영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자주화위업은 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의 궤도따라 새롭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처럼 주체사상으로 위대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위대하며 불멸의 업적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당은 없으며 반만년 민족사에 로동당시대처럼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떨쳐 진 긍지높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천품, 고매한 인덕과 불멸의 공적으로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조선로동당이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 불퇴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리론, 백승의 투쟁방략이 있어 우리 ≪한민전≫은 가혹한 폭정속에서도 굴함없이 각계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선봉에서 이끄는 애국적전위대로 성장강화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녘의 민심은 애국애족의 위대한 정치로 민족단합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르며 꿈결에도 뵙고 싶은 어버이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고 미래이시라는것을 가열찬 투쟁을 통해 철의 진리로 새긴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반미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 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년장수는 우리들의 가장 큰 행복이며 념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89(2000)년 10월 10일

민족의 수호자, 백두의 천출명장

구국전선 / 김 용 진, 주체89, 12월 21일

12월 24일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9돌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들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민족을 지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19 91년 12월24일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참가자들의 폭풍같은 열렬한 환호 속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었다.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세계의 자주위업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 크나큰 행운으로 된다.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의 대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모습대로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군술을 지니신 강철의 영장, 천출명장이시다.

그분께서는 백두산의 담력을 지니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다.

역사는 아직 **김정일**장군님처럼 영장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당, 정, 군을 이끄시는 길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위인을 알지 못한다.

문무재덕을 다같이 겸비하신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영도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이북의 사회주의를 지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시며 이북민중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끌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를 모르며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신다.

군사적 예지와 지략이 비범하고 기상과 신념, 배짱이 담대하며 영군술이 뛰어나신 **김정일**장군님 앞에서는 이름난 장군, 군사가들도 자연히 머리를 수그리게 되고 제국주의강적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된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특출한 슬기와 용맹을 지니시고 적과 싸우면 언제나 이기시는 백전백승의 용장이시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이 행성위에서 우리의 타격을 피할 자리가 없다. 바로 이것이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인민군대와 이북민중의 기질이다.

오늘 이북의 군대와 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 승리의 자신감에 넘쳐 그분의 주위에 똘똘 뭉쳐 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은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역사에는 부하들을 사랑한 장군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김정일**장군님을 따를 영장은 없는 줄 안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을 군대와 민중모두가 어버이로 칭송한다.

빗바람 창가에 몰아쳐 오고
찬서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의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이북군대와 민중이 열창하는 노래 ≪우리 아버지≫에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한껏 깃들어 있다.

이북의 인민군대와 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필요하다면 총폭탄이 되어 자폭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김정일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결사옹위정신으로 정신무장하고 그분의 선군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이북군대와 민중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

그분을 모시어 이북은 자주위업의 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강성대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수호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은 이남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이다.



천출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

(평양 주체 88년 4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6돐을 맞으며 조선의 시인들이 천출명장으로서의 그이의 위인상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시, 가사 작품을 많이 창작하고있다.

시인들은 올해 정초부터 위대한 령장의 불멸의 자취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찾는 현실체험의 나날에 백두산형의 위인, 무적의 장군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탁월한 령도력, 총대로 그이를 결사옹위하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자기들의 북받치는 격정을 담아 지난 3월말까지 372편의 시와 수십편의 가사작품들을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들은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령도자를 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지난해 9월 5일을 전후하여 지난 1년남짓한 기간에근 1, 000편의 서정시, 서정서사시, 장시, 서사시와 가사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시인들이 창작한 시와 가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에 대한끝없는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 열화같은 충성심,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조선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문무충효의 겸비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무릇 사회적 인간의 리상적인 모습을 지덕체의 겸비라 일컬어왔다. 해박한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정신적, 물적 부를 창조할 수 있고 높은 덕망을 지녀야 인간관계에서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간의 리상적 표준이 지덕체의 겸비로 요약된다면 뛰여난 위인상은 지인용(智仁勇)의 겸비로 집약된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자가 통수자의 5가지 자질로 꼽았던 지(智), 인(仁), 신(信), 용(勇), 엄(嚴)의 핵심적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령도자는 지식과 함께 지략이 있어야 하고 덕망과 함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어짐이 있어야 하며 건장한 체력은 물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조직화수준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현대에 와서 로동계급의 령수가 창업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가야 할 후계자상의 리상적인 가치기준으로서는 다름아닌 문무충효의 겸비가 요망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문무충효≫는 ≪지적체≫나 ≪지인용≫보다 새로운 차원의 심도와 넓은 폭을 담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리해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수령의 위상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면 수령의 후계자는 자주위업을 개척한 수령을 민족의 령수로서 뿐만 아니라 어버이로 받들어 모시는 충성과 효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래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수령의 위업을 편차없이 계승완성해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문무를 겸비해야 혁명과 건설을 능숙하게 령도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낼수 있다.

그렇지만 령도자의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문무충효가 스스로 겸비되는 것도 아니며 또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그러한 자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천품적인 자질과 금석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수양하고 탁마의 공을 쌓을 때 비로소 성취하게 되는 것이 문무충효의 겸비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자주위업의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는 문무충효를 완벽한 차원에서 겸비하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

1988년 6월 18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접견산에서 캄보쟈의 시하누크국왕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야말로 **김일성**주석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매우 지극한 분이라고 자기가 보고 느낀바 소감을 말씀드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충신이고 가정적으로는 효자라고 그의 견해를 수긍하신 다음 원래 충신이요, 효자요 하는 말은 봉건유교교리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충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셨다. 충과 효는 3강5륜의 대강이다.

충효문제를 채음미해볼 때 민중이 주인된 사회에서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참다운 민중적령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위적인 애국심의 발로이고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역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적 도리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력사에는 언제나 자기 조국에 바치는 사람들의 뜨거운 충의가 있었다. 그것을 일러 애국이라 한다. 호머의 ≪일리아드≫는 노예제사회에 대한 고대인들의 충성심의 찬가이기도 하였다. 중세에 이르러 봉건적 중앙집권화 과정이 촉진되면서 국가적 관념이 짙어짐

에 따라 3강5륜에서는 군신관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였다. 이 시기 조국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군주에 대한 신성관념과 결합되여 있었으며 따라서 군주에 대한 충성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그것이 곧 애국으로 일러졌다.

그러나 엄격한 신분제가 성역으로 고착된 반민중적인 봉건군주제하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이란 강요된 충성이였으며 따라서 ≪충군애국≫이란 강박된 관제적 론리가 아닐 수 없었다.

령도자에 대한충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의 일치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은 민중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참다운 민중적인 령도자가 출현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민위천≫의 리념이 현실화됨에 따라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하늘로 떠받들리는 이북의 사회체제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이 애국의 최고표현으로 국민륜리의 제1의(第一義)적인 기준으로 정착된 것은 어떤 론리적 귀결이기에 앞서 민중 스스로가 생활을 통해 신념으로 수용한 귀중한 결과물인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은 민중의 량심이요, 도덕이요, 생활이다. 그리고 이북사회의 이같은 가치질서하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성이 곧 민중의 자주성 실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헌신성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이로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완벽의 경지에서 체현한 인물이 수령의 후계자로 선정되며 그러한 수령의 후계자야말로 충성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력사의 소명으로 받아안은 후계자가 출현했을 때 혁명위업의 명맥은 꿋꿋이 이어지며 그렇지 못할 때 수령이 심혈을 바쳐 이룩한 혁명전통은 퇴색변질되고 결국 혁명의 전취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언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야말로 후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품격 가운데서 최우선순의 표징이며 생명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최고의 차원, 최상의 수준에서 체현할 충신중의 충신이신 **김정일**령도자를 수령님의 자주위업을 계승하는 민족의 령수로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더없이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당의 향도자로 추대된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신바 있다.

≪나는 이번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나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총체적으로 수령님께 충실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앞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는 또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이 나의 총적 목표입니다.

이것이 수령님앞에, 당앞에, 동지들앞에 다지는 나의 맹세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여부를 가르는데서 중핵적문제는 수령의 사상을 옹호고수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후계자의 경우 그가 진짜충신인가 충신이 아닌가 하는 것은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여 **김일성**주의로 정의하고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청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발전풍부화시키시며 세계적 범위에서의 보급과 연구 사업을 강력히 조직화하여 세인으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명실공히 자주시대의 공인된 향도사상으로 수용케 한데서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분의 충실성을 읽을 수 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일성**주석께서 의도하시고 심려하신 문제가 놓여있었고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것은 그분의 력사적 소명으로 되였다.

그분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 수령님의 의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이북의 문학예술부문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20세기 문예부흥≫으로 불리는 이북예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진 것, 대중동원운동으로 경제정책시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경제건설에서 일대 성공을 이루어낸 것 등의 사례들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충실성을 충분히 감지하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일상적인 사색과 활동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최상의 높이로 선양하는데로 이어졌다.

김정일령도자께서 1965년 4월 **김일성**주석을 수행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였다. 주석께서 당시 쏘련의 원조로 건설된 그 나라의 메인스타디움을 참관하시고 1억루블의 비용이 든 그런 규모의 경기장을 당장 건설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시였다.

주석의 심중을 가슴아프게 새기시며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합경기장을 건설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것을 결심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석의 70회 탄생일에 즈음해 모란봉경기장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기장으로 개건확장하고 ≪**김일성**경기장≫으로 명명하시였다. 경기장을 개건확장할 때에도 주석께서 모란봉의 풍치와 관련해 경기장관람석을 높이자는 제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점을 잊지 않으시고 경기장바닥을 1. 5메터 낮추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서 릉라도에 락하산형으로 된 15만명 수영의 세계적인 메버드경기장(5월1일경기장)과 만경대구역에 국제적 규모의 체육촌을 건설하시였다.

주석께서 빙상관을 부러워하시면 세계적인 빙상관을 건설하시고 시민의 주택문제를 근심하시면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문수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대규모 주택단지들을 조성하시였다.

그분께서 발기하고 부지를 잡아주고 건설공장을 지도해서 완공하신 평양의 창광원, 평양산원, 인민대학습당과 대성산, 만경대의 대공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시던 대상들이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전기에는 그분께서 유년시절부터 **김일성**주석의 안녕과 만년장수를 위해 정성을 바쳐오신 이야기들이 감명깊게 서술되여 있다.

1949년 10월 어머님이신 김정숙녀사가 타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날이였다. 20여일간의 지방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밀린 일감을 처리하시느라 새벽까지 저택에서 일을 보시였다. 창문밖에서 참새떼가 몰려 다니는 지저귐소리가 들리더니 잠시후 조용해졌다. 수령님께서 창가에 다가가 밖을 내다보시였을 때 정원의 나무들사이를 오가며 긴 장대를 휘젓는 아드님을 발견하시였다.

수령님의 새벽잠을 지켜드리시느라 김정숙녀사께서 참새를 쫓군하시던 그 장대를 이번에는 어리신 자제분께서 들고 새를 몰고 있었던 것이다.

그무렵의 어느날에는 작은 톱을 허리에 차고 정원의 과일나무에 올라 수령님께서 거니실 때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시였다.

1952년 여름 수령님과 따로 떨어져 계시다가 최고사령부에 오신 그분께서는 반나절이나 걸려 아버님께서 다니시는 정원 오솔길에 도드라져 나와 있는 돌들을 다 뽑아버리고 길을 고르게 다듬으시였다는 일화도 있다.

1963년 8월중순 어느날 수령님을 모시고 후치령을 넘어 백두산일대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귀로에 오르신 때였다. 온종일 달리는 렬차에서도 집무에 여념이 없으신 수령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수행하는 일군에게 렬차를 어느 조용한 역에 멈춰세워 나문 얼마동안만이라도 수령님께서 푹 쉬시게 해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한 간이역에 렬차가 멈춰서고 수령님께서 잠에 드셨을 때 그분께서는 구내에 내리시여 객차가까이 켜져 있는 전등을 끌수 없겠는가고 문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전등을 끄느라면 하나의 선으로 련결된 구내의 모든 불이 꺼질 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차안에 들어가 창문에 휘장을 치시였다. 그런 다음 수령님께서 잠이 깨시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도록 구내전등은 끄지 말자고 말씀하시였다. 얼마후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소리를 들으신 그분께서는 운전지휘원과 기관사사이에 약속이 되면 기적소리를 울리지 않고 역을 통

과할수 있지 않겠는가를 수행일군과 의논하시였다.

이리하여 그날밤 모든 차들은 기적소리없이 조용히 역을 통과하였던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는 동서고금을 통털어 전무후무할 효자의 사표(師表)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급서는 수령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를 위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늘 마음쓰시고 백방으로 노력하시던 그분께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였을 것이다. 그분께서 가슴을 저미는 회한을 감내하면서 직접 취하신 영결의식과 추도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극진한 효자이심을 증시하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94. 7. 20)은 ≪조선민족의 전통에는 장례식에서 상주가 일절 발언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며 **김정일**후계자가 추도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풍습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와 관련해 **김정일**령도자께서 보이신 효자로서의 풍모를 두고 미국 콜럼비아대학 ≪한반도문제연구≫부소장 린턴은 7월 24일부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완벽한 효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조선의 효자의 자세를 강하게 보여주었다.

효자는 늘 부친을 위해 산다. 자기것은 버리고 언제나 부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보면서 결코 부친앞에 나서지 않고 그 주위에서 늘 부친을 떠받든다.

서방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외교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할수도 있으나 조선민족의 전통으로 보면 이것은 효자의 훌륭한 모범적인 행동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효성은 혈연적인 어버이에 대한 아드님으로서의 극진한 효성인 동시에 사상의 뇌수,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혁명의 령수,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하나로 융합되여 있는 점에서 세속적인 효성과 차원을 달리한다. 그분의 충효일심은 만경대 가문의 충의혈통과 김정숙어머님의 충효교양에 의해 천품화되고 수령중심론의 정치철학으로 굳어진 신념이고 의지라는데 충효를 겸비하신 점에서 그 누구도 다를 수 없는 그분의 위인상이 부각된다.

문에 정통, 무에 달통

인류력사를 눈여겨보면 건설과 전쟁의 교차속에서 그리고 창조와 파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량자가 결합되여 총체적으로는 사회발전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온 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건설의 전과정이 총체적으로 정신적, 물적 재부를 창조해온 력사라고 하면 전쟁사는 자기의 것을 지키거나 타국의 령토와 재부를 빼앗기 위한 싸움의 력사이다. 건설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두 요인에 의해 수행되여 왔다. 이같은 시각에서 볼 때 건설이나 전쟁이나 모두 물리적 에네르기와 정신적 에네르기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회건설의 지적능력인 문식(文識)과 전쟁수행의 지적 능력인 무략(武略)이 엄연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분야라는 것 또한 누구에게나 명백한 상식이다.

정신적, 물적 부를 창조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거니와 문무를 겸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문관이 자기가 맡은 시정분야에 정통하면 명관이라 하고 무관이 군사에 능통하면 명장이라 일렀고, 문무쌍전한 출중한 인물을 가리킬 때 ≪출장입상≫(出將入相)이란 말을 붙였다.

그러나 만물의 생성원리와 변화발전을 그 어떤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조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명정도가 유치한 단계에서의 문관의 명성을 지구가 하루의 생활권에 들고 인간이 우주정복단계에 이른 오늘의 식자에 비길바가 못되며 또 활과 창, 구식 화포와 말에 의한 성새쟁탈전을 지휘하던 무관을 첨단병기에 의한 현대의 립체전을 지휘하는 령장에 비길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3대정복왕으로 일컬으는 알렉싼드르나 칭기스한, 나뽈레옹도 정복전쟁으로 일생을 마친 인물들이지만 그들의 군사적 명성 역시 당시의 력사적 배경하에

서 이루어진 것이다.

현대에 이르면서 과학의 발달은 그 폭과 깊이와 속도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현대전에 부응한 군사리론과 병법, 용병전술 역시 범상한 두뇌로써는 리해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발전상황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치와 과학과 군사의 결합이 사상 전례없이 높아진 동시에 제2차 대전이후 세계적으로 1백 40여차례의 국부전쟁과 무력충돌을 기록할 정도로 정치군사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같은 현실상황은 령도자의 문무겸전을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관건적인 요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과 무를 가장 완벽한 경지에서 겸비하신 절세의 위인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대를 이은 민족의 령도자로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라 할 것이다.

김정일령도자의 학문적 조예는 경탄할만큼 심원하고 다방면적이다.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신 그분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중에 주체의 정치경제학은 물론 영국의 고전경제학과 맑스-레닌주의경제학, 경제사상사에 관한 연구에 정진해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1962. 1),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1964. 3) 등 명론문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의 경제학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시였고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한 정치학을 학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시였다.

그분은 뛰여난 철학적 사고를 지닌 철학의 대가이시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철학적 사고가 특출했으며 비상한 정열로 동서고금의 철학서를 탐독하시고 고대철학에서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철학적 개념과 원리와 체계, 고금동서의 철학사조들에 관해 정통하시였다. 철학에 관해 그같이 뛰여난 조예를 지니셨기 때문에 선행철학과의 계승과 혁신의 연관에서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철학사적 위상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철학적 예지에 의해서만이 ≪≪공산당선언≫을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의 명저들을 내놓으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독창적으로 정식화하는 공적도 이루어낼수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그분은 고금동서의 력사를 환히 꿰뚫고 주체적 립장에서 왜곡된 민족사도 바로잡아주시고 민족의 우수한 전통도 빛내여 나가시는 민족사적 정통성의 체현자이시다.

그분은 ≪영화예술론≫(1973. 4), ≪주체문학론≫(1992. 1)등 불후의 명저들로써 주체의 문학예술리론을 새롭게 정립하시고 그를 구현한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룩된 주체적 문학예술 창조의 경험과 생활력을 집대성하여 진보적 인류에게 참다운 민중적 문학예술의 진로를 밝혀주신 문학예술의 천재이시다.

그분은 또한 ≪건축예술론≫(1991. 5)을 비롯한 수많은 저서들을 통해 주체적인 건축물의 창작 및 형성에 관한 리론과 지도방법을 확립하시고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 건립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북을 건축의 나라로 빛내이시는 건축의 영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는 정치와 경제, 력사와 문학예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건,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과 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견문을 지니신 특출한 학자이시고 뛰여난 박식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는 탁월한 문식에 령활한 무략을 겸전하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그분께서는 ≪백두산호랑이≫로 그 이름만 들어도 백만≪황군≫이 겁먹던 항일대전의 전설적 령장 **김일성**장군과 항일의 녀장수로 명성 높던 김정숙녀사의 천품적인 군사적 예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군사의 대가이시다. 그분이 탄생하시였을 때 몸을 감싼 강보는 군복을 뜯어 기운 포단이였고 귀에 익힌 것은 총포성이였으며 눈에 익힌 것 역시 밀영과 행군대렬, 치렬한 싸움터였다. 광복후에도 그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사격술을 익혔고 6.25전쟁의 나날에는 무자비한 현대전의 생리를 뇌리에 새기시였다. 학창의 나날에는 벌써 현대정치가 군사의 동반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 나라의 지정학위치로 보아 군사를 중시하고 군략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항일무장투쟁사와 주체의 전법과 전술에 통달하는 동시에 고금의 전쟁사와 병법에 정통하시였다. 그리고 학창시절 군사야영의 실천속에서, 병종별 부대들에 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이미 쌓은 군사지식을 확인하시였다. 그 나날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군사리론과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알맞는 주체적인 전법을 발전시키였다. 탁월한 군사적 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강군으로 강화하고 이북을 난공불락의 사회주의 성새로 전환시킨 여기에 군사적 영재로서의 **김정일**령도자의 선견지명과 위대성이 있고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위훈의 탑이 있는 것이다.

지략과 영군술

구국전선 / 박 철 룡, 주체89, 7월 21일

오늘 국제사회는 **김정일**장군을 탁월한 군사적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신 걸출한 군사의 영재, 강철의 영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는 휴전이래 수많은 군대가 대치된채 50여년동안이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이 대결을 가리켜 ≪무혈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대치쌍방 군수뇌부사이의 전략전술의 대결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장군과 펜타건사이의 첨예한 지략의 대결인 것이다.

휴전이래 미국은 이북에 대한 무력도발을 빈번히 일으키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왔다. 70년대 중엽에 와서 미국의 군사적 전횡은 더욱 우심해졌다. 76년 ≪판문점사건≫으로 정세가 각일각 긴장해지고 있던 어느날 **김정일**장군께서는 이북군부의 한 고위간부를 부르신 적이 있다.

그분께서는 그를 데리고 평양시 교외의 한 호숫가로 나가시었다.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계시던 그분께서는 평양시건설에 인민군 군인들을 동원하려고 한다는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셨다. 군사문제와는 관련없는 그분의 말씀에 군장성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함께 적들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벌써 이겼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위대한 영장을 모신 기쁨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고 훗날 술회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이남 국군이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던 81년부터 86년사이에 숱한 인민군부대들을 대자연개조사업인 서해갑문건설에 동원하시어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실을 놓고 보아도 **김정일**장군의 배짱과 지략이 어떠한가를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상사람들은 미군부와 **김정일**장군과의 두뇌대결전에서 극치를 이루었던 93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93년 정초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93≫한미합동훈련과 미국의 사주하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핵특별사찰≫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세계는 숨을 죽이고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에도 **김정일**장군의 태도는 자신만만하고 여유작작했다. 그분께서는 그때에도 전승 40돌을 기념하여 평양시에 건립되는 건설대상들에 인민군 군인들을 동원하셨다 한다. 사실 펜타건의 작전가들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평양도 어마어마한 군사적 위협과 ≪핵사찰≫압력으로 포위환을 좁힌다면 수그러들리라고 타산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그들이 계산할 수 없었던 것은 군사의 영재이신 **김정일**장군의 지략이었던 것이다.

원래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정일**장군의 지략과 전략을 연구하는 ≪K.J.I.≫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장군의 변화무쌍한 지략은 컴퓨터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일장군은 영활무쌍한 지략과 함께 뛰어난 영군술을 지니고 계시는 희세의 영장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중심의 철학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영군술을 지니고 계신다. 전 소련국방상 드미트리 야조브원수가 술회한데 의하면 그분께서는 군인을 기본으로 무장력을 고찰하는 군인중심론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를테면 전쟁승리의 기본은 무기보다도 그 담당자인 군인이라는 것, 즉 군인을 무장력의 주체로 보신다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사람중심, 사상위주의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무장력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군인이며 군인들의 사상과 도덕에 의해 전쟁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밝히시었다. 이것이 그분의 영군철학이다.

이 위대한 영군철학이 군건설위업에 구현되어 이북의 인민군에는 최고사령관과 장병들간의 혼연일체가 철저히 보장되었다.

이북의 군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김정일**장군의 군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으며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만되어 있다. 이러한 군대는 역사에 일찍이 없었다.

미국방성의 고위당국자가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지닌 영군적 예지는 놀랍다기보다는 경이적이며 부럽다기 보다는 매혹적이며 출중하다기 보다는 전무후무한 것이다≫라고 격찬한 것이 결코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늘 **김정일**장군에 대한 서방군사평론가들의 찬양과 선망은 그분의 군사적 지략과 영군술의 위대성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언이라 하겠다. **김정일**장군과 같은 불세출의 명장, 호국의 대영웅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겨레의 안보와 번영의 담보로써 민족의 대행운이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비범한 군사지략

조선중앙통신 론설



(평양 주체 87년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4월 9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다섯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류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군령도로 민족의 자주권과 세계 사회주의의 보루를 고수하고 계시는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지난 5년간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공갈속에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초긴장상태가 계속 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지략에 의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적인류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도 경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어 서방의 군수뇌들까지도 저들의 종합된 견해라고 하면서 **김정일**동지의 군사적특징은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며 타격이 무자비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지난 30여년간 군 건설과 령도에서 특출한 군사적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 주변에 수십만의 병력과 함대, 비행대를 투입하고 동맹국 군장성들과 작전전문가들을 초청해다 소위험의 전략을 시위하던 어느해 합동군사훈련때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이 군사연습을 벌리는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시고 전연지역들에서 인민군련합부대들의 대기동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아군의 돌변적인 움직임을 보고 적들속에서는 비행기가 항공모함갑판을 들이받고 땅크가 늪속에 통채로 빠지는것과 같은 소동이 련이어 벌어졌다. 이에 당황한 적들은 극적인 사태를 조성해 보려고 아군 후방에 그 무슨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륙전대≫투하훈련을 시도하였다. 이 기도를 미리 간파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아군으로 하여금 적이 ≪투입≫될 지점을 먼저 차지하고 적≪륙전대≫소멸훈련을 실전처럼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 무자비한 화력타격전을 위성을 통해 입수한 적들은 저들이 가상했던 지점과 아군의 대응훈련지점이 같은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의 군사적지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김정일각하는 천출위인이시다

인디아인사

(평양 주체 89년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6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책임주필 아님 쿱따는 오늘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며 명백한 해답을 주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은 새로운것을 끊임없이 도출해 내는 독창적인것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백과전서적인것이다.

실로 그이는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를 모시고 있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크나큰 영광이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 책임주필 프라빈 쿱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지난 기간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조국과 인민,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는 력사상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풍모,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천출위인이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절대적인 권위는 조선통일위업의 완성을 위한 위대한 기치로, 기본담보로 되고 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그이의 령도밑에 가까운 앞날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하고 있다.

백두산은 외친다

(평양 주체 90년 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21세기 첫 2월의 명절인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삼가 드리는 서사시 ≪백두산은 웨친다≫가 발표되였다.

≪로동신문≫12, 13일부가 여러면에 걸쳐 서사시를 실었다.

백두산은 나라의 동북부 량강도에 있다. 조선의 반만년력사의 증견자인 조종의 산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력사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의 성산이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향이다.

서사시는 백두산이 낸은 위대한 아들인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에 대한 21세기 백두산찬가이다.

서사시는 **김정일**장군께서는 수령숭배의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선대수령위업계승의 시범을 창조하신 불세출의 령도자이시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서사시는 또한 그이께서 선군혁명의 장검을 높이 추켜 드시고 21세기 주체조선의 미래를 가리키시는데 대하여, **김정일**광폭정치가 낸은 위대한 동지애에 대하여, **김정일**장군님은 인민을 ≪하느님≫으로 받드시는 철저한 인민파, 인민의 장군이시라는데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백두산이 있어 조선이 빛나듯이 **김정일**장군을 모시여 백두산은 영원히 태양의 성산, 주체의 성산으로 천세만세 빛나리라고 서사시는 강조하였다.

일당백의 강군으로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잊을 수 없는 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더욱 밝게 비쳐주는 당중앙의 불빛은 인민군장병들에게도 뜨겁게 미쳐갔다. 그 불빛은 인민군장병들을 조국과 민중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갈 무적의 싸움꾼으로 키우는 향도의 불빛이고 군인들 모두를 따뜻이 비쳐주는 사랑의 빛발이었다.

1967년 8월 5일이었다. 그무렵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민중을 위해 한몸바쳐 싸우는 일당백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해 군부대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영도자님께서 이날 오후 동해안의 한 연합부대를 찾으시였다.

그 부대의 부대장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키워오신 오랜 투사였다.

부대안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전투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그분께서는 부대지휘관들과 소박한 저녁식사를 나누시고나서 부대장을 데리고 숙소로 가시였다. 그분께서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나 좀 하자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화제를 꺼내시였다. 국제정세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다보니 밤이 퍼그나 깊었다. 이야기에 심취되어 있던 부대장은 먼길을 오신 그분께서 피곤해 하시리라는 것도 생각못하고 한정없이 앉아있은 것을 자책하면서 서둘러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제는 밤이 깊었는데 여기서 같이 자자고 하시면서 서로 일이 바쁘다보니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부대장은 한없는 기쁨에 휩싸였다. 사실 부대장은 4년전에 한 전연구분대에서 그분을 모신 일이 있었는데 그후로는 처음이었다.

그분께서는 무척 기뻐하는 그에게 넓은 침대를 내주시고 자신께서는 좁은 침대에 자리를 잡으시였다. 딱하게도 그 침실에는 넓은 침대와 좁은 침대가 각각 하나씩 뿐이었다.

부대장은 영도자님께서 넓은 침대에서 주무셔야 한다고 황망히 간청했으나 그분께서는 나이 많은 분이 좁은데서 자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굳이 넓은 침대로 이끌어다 앉혀주시였다. 부대장은 딱하게 되었다. 불원천리하고 찾아오신 그분을 어찌 좁은 침대에 모시랴 싶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로 권하고 서로 사양하여 좀체로 낙착이 안되는데 결국 그분께서 두 침대를 다 그만두고 바닥에서 같이 자자는 명안을 내놓아서야 일이 풀렸다.

그리하여 부대장은 응접실 바닥에 그분과 한이불을 덮고 나란히 눕게 되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그밤 부대장은 일제놈들에게 일가친척을 다 빼앗기고 12살 어린 나이에 **김일성**주석님의 품에 안겨 자라온 지난날의 가지가지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그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신듯 이야기나 좀더 하다가 자자고 하시면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무슨 훈련이 제일 힘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백두의 원시림 속에 자리잡은 훈련기지에서 군정훈련을 다그치던 나날이 어제일같이 선히 떠올랐다. 그때 훈련기지에서는 강행군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 무선훈련, 스키훈련 등 여러가지 훈련이 맹렬히 진행되었는데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그에게는 무선공학에서 배우는 무슨 법칙이요, 원리요 하는 것들이 도무

지 알 수 없었고 송수신훈련도 여간 애먹는 일이 아니었다. 전술훈련이나 스키훈련 같은 것도 조련치 않았다. 그때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여사께서 원쑤 일제를 때려부수고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겠다는 강심을 먹고 달라붙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고 하시며 도와주는 바람에 훈련의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었다.

부대장의 이런 회고담을 들으신 그분께서는 40년대에는 일제를 때려부수었다면 이제는 미제를 타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군인들의 훈련을 강화하여 싸움준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일부 부대들에서 여러가지 잡다한 일을 자주 조직하면서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을 두고 몹시 심려하시었다.

그분께서 심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는 그 부대에도 있었다. 웃단위의 개별적 지휘관들이 내리먹이는 부당한 지시로 하여 훈련강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억이 막히신듯 한참이나 말씀을 못하시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타이르시었다. 부대의 전투준비와 훈련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진 사람은 다름아닌 부대의 책임일군이라는 것,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의 구호를 관철하는데서 기본은 훈련이라는 것,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 기본을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깨우쳐 주시었다.

부대장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몸소 전연에 위치한 대덕산초소를 찾아주시고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면서 젊은 병사들을 잘 교양하고 일당백으로 준비시켜 그들이 한몫 하게 하라고 간곡히 가르쳐 주신 뜻깊은 말씀을 직접 받아안은 자신이 아닌가.

기억도 새로운 1963년 2월 6일, 신생 쿠바를 요람기에 압살할 목적으로 카리브해위기와 같은 엄청난 사태를 격발시킨 미국이 주한 유엔군과 국방군에 전투비상까지 걸어놓고 있던 그 무렵 온밤 내려쌓인 숫눈길을 헤치며 대덕산초소를 찾아주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방어공사와 전투훈련을 잘하면 일당백이 될 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인민군대에 ≪일당백≫이라는 유명한 구호를 제시하신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때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수령님앞에서 그 어떤 원쑤들이 달려들어도 일당백으로 방어해 내겠다고 결의다지는 지휘관들에게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물론 한사람이 적을 열놈, 백놈 담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무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적을 족치는 전법에 숙련된다면 일당백은 문제없습니다. 지휘관들은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구절구절이 쟁쟁히 되살아오르면서 그 귀중한 말씀을 직접 받아안은 자신이 이러저러한 장애가 있다고 하여 군인들의 훈련에 모를 박지 못한 자책이 가슴을 쳤다.

그분께서는 괴로워하는 그를 위로하시려는듯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제는 자자고 하시면서 너그러이 웃어보이시었지만 부대장은 잠들 수 없었다. 당과 국가 사업에 그처럼 바쁘신 그분께서 어찌하여 멀고먼 전연부대에까지 찾아오시었는지 그리고 딱딱한 방바닥에 한이불을 덮고 누우시어 그토록 간곡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깨달아졌다.

먼 농가쪽에서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아스랗게 들려왔다. 초소의 군인들을 찾아주시고 ≪일당백≫의 구호 관철을 위한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신 뜻깊은 밤이 지새고 있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다른 부대들에도 수없이 찾아가시어 이런 뜻깊은 밤을 보

내시며 군인들을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키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전군의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켜 조국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내도록 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시며


≪푸에블로≫호

1968년 1월에 조선동해에서는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이 공화국의 영해깊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일당백의 용사로 키워내신 조선인민군이 조국과 민중의 안녕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충격사건이었다. 자기를 국제헌병으로 자처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횡을 부리며 거만하게 행동하던 미국이 된매를 얻어맞고 어쩔줄을 몰라하며 당황망조해 하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때 미국은 어리석게도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을 부추겨 이북에 간첩선과 승무원들을 돌려보내라고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파렴치한 군사적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베트남전선으로 출동중이던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제7함대소속의 수많은 함선들을 조선해역으로 돌렸으며 오키나와주둔 미군 2개 비행대대를 이남에 급파하고 주한 미군과 국방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렸으며 미전략공군사령부 예하 추격기무력에도 경계령을 떨구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세계가 숨을 죽이고 사태를 주시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평양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군으로 개편한지 스무돌이 되는 날을 뜻깊게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연회연설에서 미제가 이 사건을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체와 죽음뿐이라는 것,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연회장에 폭풍같은 갈채가 일 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곁에 앉은 인민군 총정치국의 한 책임일군에게 외국인 초대석을 눈길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었다.

저 사람들을 좀 보시오.

그 일군이 외국인 초대석 쪽을 바라보니 그들은 눈이 둥그래진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미국이 원산을 폭격하겠다, 청진을 폭격하겠다 하고 무시무시한 호전적 망발을 함부로 떠벌리면서 정세를 첨예한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때에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그렇듯 폭탄같은 선언을 내릴줄은 상상도 못한 그들이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연설에 접하여 격앙된 심정을 금치 못해하는 그 일군에게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무비의 담력을 가지고 적들과 맞서 견결히 싸우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고나서 이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가 아주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두고 보시오.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었다.

정녕 그것은 천하무적 영장의 심중을 드러내보인 저력있는 선언이었다.

그후 이북에서 벌어진 사태가 이 선언의 참뜻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북에서는 적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졌다. 각종 현대적 무장장비들이 두터운

방수포를 벗어던지고 전투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완전무장한 군종, 병종 예비구분대들이 지정된 작전계선으로 진출했다.

전체 민중은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밤까지는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한 당과 수령의 의지를 받들고 더욱 세찬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었으며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대회와 같은 큰 대회가 예정대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한편 수많은 청년들이 원쑤격멸의 투지를 안고 인민군대에 탄원해 나섰다.

이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의 전투적 기세를 한껏 높여주시었다. 그분께서는 모든 장병들이 언제나 ≪일당백≫의 용맹과 담력으로 적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1968년 9월 1일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어지러이 뒤채기고 바람세까지 사나운 그날 영도자님께서는 한 비행구분대를 찾으시었다. 일기조건이 불리한 정황에서의 비행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도착하시니 마침 중요한 비행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받기 위한 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상황이 복잡했다. 짙은 구름 속에 들어간 비행기가 자주 요동치면서 한쪽으로 밀리고 있었던 것이다. 승조원들이 무진애를 쓰고 있었으나 비행기는 좀처럼 자기 항로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순간에 초조감과 불안이 감도는 지휘소안의 분위기를 일별하신 그분께서는 비행기 도착시간과 풍속을 알아보시고나서 비행지휘관들의 긴장해 있는 마음을 풀어주시려는듯 여유있게 이야기를 건네시면서 담배까지 권하시었다.

만면에 온후한 미소가 어린 그분의 존안을 우러르느라니 방금전까지 그렇게도 안타깝던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느슨해졌다.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것으로 하여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정이 온 것이였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자신께서 한번 비행지휘를 해보자고 하시며 민첩하게 비행마이크를 잡으시더니 즉시 비행사를 호출하시었다.

나의 말이 잘 들립니까?

지휘소와 비행기 안에 그분의 음성이 쩌렁쩌렁 울려퍼졌다.

예, 잘 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한없이 자애롭게 마음을 어루어주는 그 음성, 누구실까? 오매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몸소 비행마이크를 잡으시고 자기들의 착륙을 지도해 주실줄이야 그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김정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리시버를 통해 귀청을 때렸다.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한치앞도 가려볼 수 없는 먹구름 속에서 세찬 바람에 부대끼면서 안간힘을 쓰다가 오매에도 그립던 그분의 존함을 들은 순간 승조원들의 온몸에 격정의 세찬 전류가 흘렀다.

이제는 됐다는 생각이 심신을 거뜬하게 만들었다.

영도자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바람이 세찬데 주의해서 착륙해야겠다고 주의를 주시고나서 고도와 속도, 방향각들을 연이어 물으시었다.

비행지휘소의 모든 지휘관들은 바싹 긴장해졌다.

비행사가 대답드리는 족족 그에 대한 제원을 구해 주시면서 비행기를 활주로로 유도하시는 그분의 음성만이 지휘소와 비행기, 온 우주에 가득 찼다.

이윽고 비행장 한쪽 상공에 동체를 드러낸 비행기가 세차게 갈개는 바람을 맞받으며 기수를 낮추더니 서서히 활주로를 타기 시작했다.

영도자님께서는 달려오는 비행사들을 향해 급한 걸음으로 마주가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수고했다고, 날씨가 나쁜데도 아주 잘 내렸다고, 그간 훈련을 많이 한 것이 알린다고 치하해 주시었다.

구분대 지휘관들은 다급한 정황 속에서 당황하여 비행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을 책할 대신 오히려 치하해 주시는 그분을 우러르며 가슴뜨거워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백전백승의 영장이신 그분께서 안겨주신 담력이 든든히 자리잡았다.

인민군장병들에게 그 어떤 뇌성벽력에도 끄떡없을 담력을 안겨주신 것은 비단 이날만이 아니었다. 그런 일은 수다한데 여기에 한가지 이야기만을 더 소개한다.

언젠가 그분께서 어뢰정에 올라 해병들과 함께 항해하실 때의 일이다.

파도사나운 난바다에 그분을 모시게 된 전대지휘관들은 그분의 신변이 염려되어 소정된 전투속도를 내지 않도록 훈련과정안을 조절했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훈련도 전투라는 심정으로 실전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훈련강령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라고 이르시었다.

항로를 이리저리 바꾸며 ≪적≫을 향해 돌진하는 어뢰정의 기상은 그야말로 노한 사자를 방불케 했다. 선미에서는 물보라가 비행운처럼 내뻗치고 무선기안테나는 활등처럼 휘었다.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종횡무진으로 내닫는 함선들의 용맹한 모습을 만족스레 지켜보시면서 그분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어뢰정 성원들은 대담하고 용감하여야 합니다.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용감하게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충성심과 용감성, 자기 희생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사나운 파도도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짓부술 일당백의 담력은 훈련을 강화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당백은 구호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당백의 기본열쇠는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훈련입니다라고 해병들의 훈련열의를 더한층 고무해 주시었다.

인민군군인들은 그분께서 키워주신 이런 무비의 담력을 가지고 적들의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어 버림으로써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전쟁광증을 일으키던 적들의 거만한 콧대를 보기 좋게 눌러놓았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공화국의 영공에 불법침입했던 미제의 간첩비행기 ≪이씨—121≫도 단호히 격추해 버리었다.

바닷가초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967년 7월 어느날 동해안의 한 해안포중대를 찾으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미국과 이남당국이 그해 봄에 있은 ≪경호함 56≫호사건을 계기로 백영도, 대청도, 소청도를 비롯한 동서해안과 휴전선 일대에서 연일 광란적인 군사연습을 벌이며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던 때였다. 이에 대처하여 인민군부대들에서는 전투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다. 이런 때에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동해안의 해안방어실태를 살펴보시기 위해 이곳을 찾으신 것이었다.

그분께서 이렇게 초소를 찾으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멀고 외진 초소일수록 더 마음쓰시면서 자주 들리시었으며 들리실 때마다 군인들의 가슴에 총퀸병사의 자각과 영예를 깊이 심어주시고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라고 고무해 주시었다.

언제인가는 그분께서 이슬이 소리없이 내리는 이른새벽에 최전연초소를 찾으신 일이 있었다. 밤새 달려오신 그분을 너무나 뜻밖에도 최전연초소길에서 만나뵈온 군인들의 감격은 매우 컸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도자님을 전방초소에까지 가시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께서 타신 차를 막아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됩니다. 더는 가실 수 없습니다.

영도자님께서 오시는 걸음마다에 축원의 꽃보라를 뿌려놓고 군악을 울리고 만세를 부르며 맞이하는 영광의 시각을 꿈꾸어온 그들이였지만 살기어린 총구가 항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휴전선초소길에 그분을 모셔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최전연에서 적들과 총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초병들이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곳에 자식을 보내놓고 그것이 걱정되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친부모의 정이 흥건히 실린 그 말씀에 군인들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안녕은 곧 전체 민중의 안녕이고 조국의 미래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안됩니다. 절대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가슴들을 내대고 성벽같이 막아섰다.

영도자님께서는 그러는 그들의 어깨며 가슴들을 일일이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길을 나라고 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적들과 총을 맞대고 싸우는 초병들도 만나보지 않고 그냥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초소들을 찾으시는 그분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다.

언제인가는 어느 한 구분대의 보초소옆에 수양버들가지들이 휘늘어진 것을 보시고 차에서 내리신적이 있었다. 오가는 숱한 사람들과 부대 지휘관들까지도 버들가지가 휘늘어져 풍치가 참 훌륭하다고 여겼을 뿐 달리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버들가지들이 보초병의 시야를 가리우리라는 것을 염려하신 것이었다. 때마침 초소의 군인들은 오침시간이었다.

그분께서는 황급히 군인들을 깨워 나뭇가지들을 치겠다는 초소장을 만류하시면서 조금 손질하면 되겠는데 우리끼리 하자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톱과 전정가위를 가져오게 하시어 손수 가지들을 자르시었다.

한참이나 걸려서야 초소주변을 환하게 정이해 놓으신 그분께서는 그제서야 소식을 듣고 달려와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해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보초병들인 동무들의 임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보초병이 졸면 조국이 잠자고 조국이 잠자면 원쑤놈들이 검은 칼을 들고 기어들 수 있다고 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각성을 높여 초소를 물샐틈없이 지켜야 합니다.

보초병은 곧 조국의 눈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듯 조국의 모든 초소들을 철벽으로 다지시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넘고 파도를 헤치시며 최전연초소로, 하늘길초소로, 바닷가초소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것이었다.

유난히도 쾌청한 7월의 그날 아침 일년 가야 오가는 길손 하나 볼 수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외진 바닷가초소에서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맞이한 전사들은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동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며 영접보고를 올리는 중대장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신 그분께서는 전사들의 건강과 초소의 전투준비상태, 훈련정형과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나서 진지 위장상태만 보아도 구분대의 전반적 전투준비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니 모두 함께 바다로 나가자고 하시었다.

목선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어 바다로 나가니 해변가의 아름다운 풍치가 무연한 전야에서 오가는 트랙터며 공장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구름같은 흰 연기와 어우러져 시야에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으로 안겨왔다. 맑은 물 속에는 미역이며 다시마 숲이 우거지고 섭, 조개, 해삼, 성게 따위가 쭉 깔렸는데 살진 고기떼가 그 사이로 한가스레 헤어다니고 있었다. 군인들에게는 그것이 늘 보아오던 풍경이었지만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모신 감격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흥분으로 마음이 떠있는 군인들과 즐거이 담소하시던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육지에서는 공장들이 일떠서고 트랙터가 오가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고깃배들이 물고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동해는 어데 가나 아름다우며 우리 나라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군인들은 피흘려 찾고 건설한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신성한 조국땅에 원쑤놈들이 더러운 발길을 한치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선 초병된 자각이 가슴벅차도록 그득히 안겨오게 하는 뜻깊은 말씀이었다. 자기들의 양어깨에 실린 중임을 더욱 무겁게 느껴보는 군인들을 자애깊은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그분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륙으로 통하는 길들은 다 평양과 잇닿아 있습니다. 평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는 조국의 심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평양까지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조국의 영해를 지켜선 바닷가초병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곳도 결코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륙으로 통하는 길들은 다 평양과 잇닿아 있다는 그분의 말씀은 군인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민중의 안녕을 위하여 초소를 더욱 굳건히 지켜갈 충성의 맹세를 다졌다.

배는 어느덧 기슭에서 퍼그나 멀어졌다. 군인들의 사기도 높고 진지위장도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그분께서는 군인들에게 내외정치정세도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경각성을 높여 조국의 바다와 해안에 그 어떤 적들도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시었으며 사격술을 높여 적함을 단방에 명중시키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시었다.

행복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군인들은 그분께서 함께 바다로 나가보자고 하신 깊은 뜻이 더욱 가슴깊이 안겨왔다.

뭍으로 돌아오신 그분께서는 후방물자 창고들과 식당, 군인들의 병실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었다. 절인 물고기를 저장해둔 독뚜껑도 열어보시고 층층 당반을 매고 말린 물고기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을 보시고는 싸움준비를 잘했다고, 이만하면 군인들의 식생활문제도 마음놓을 수 있겠다고 치하해 주기도 하시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한낮이 기울기 시작했다.

영도자님께서는 떠날 차비를 서두르는 일군들에게 오늘은 여기서 전사동무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식당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군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환성을 올리며 어려움을 잊고 그분을 따라 식탁둘레에 모여앉았다.

그분과 함께 온 일군들이 몹시 딱한 표정으로 서있다가 그분께서 거듭 독촉하셔서야 아침에 준비해 가지고 떠났던 식사를 차려놓았다.

빵과 두어가지 반찬이 전부였다. 너무도 검소한 그분의 식찬을 보고 나어린 신병들은 물론 지휘관들도 모두 놀랐다. 그리고 이럴줄을 알았더라면 모처럼 오신 영도자님께 식찬이라도 몇가지 따로 만들어 올릴걸 그랬다고 후회막심해 했다.

그러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그분께서는 왜 그러고들 있는가, 어서 와서 앉으라고 하시면서 어서 국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었다.

지휘관들과 취사병들은 더욱 난처해 했다. 온 중대가 먹을 수 있게 큰 가마에 국을 끓였는데 그것을 그분께 올리자니 딱했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영도자님께서는 괜찮다, 전사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라고 해서 왜 못먹겠는가, 우리가 먹어서 안될 음식이라면 응당 전사들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애롭게 웃으시었다.

그분께서는 취사병들이 정히 떠올린 국을 맛보시고 국맛이 참 구수하다고 치하하시고나서 즐겁게 식사를 하시면서 군인들이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가, 철따라 나오는 과일들은 다 맛보는가를 알아보시고 지금은 수박이 한창인데 전사들에게 그런 것도 많이 갖다먹이라고 이르시었다.

정녕 한가정과도 같이 화기애애한 식탁이었다. 영도자가 전사들과 한가마국을 함께 드는 이런 희한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이날 바다로 기어드는 적은 바다에서 소멸해 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사격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면서 몸소 사격훈련장에 나가시어 여러가지 사격훈련동작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었다.

뜻깊은 시간이 흘러 긴긴 여름해가 서켠으로 기울 무렵 헤어지기 서운해하는 초소 군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영도자님께서는 초소 지휘관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었다.

오늘은 바닷가초소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

동무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전투준비에서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전투준비를 더욱 다그쳐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알겠습니다. 초소는 염려마십시오. 언제나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조국의 해안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내겠습니다.

한결같이 힘찬 대답을 올리였다. 동해의 푸른 물결도 군인들의 높뛰는 마음을 안은듯 기슭을 치며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무적강군을 키우신 특출한 실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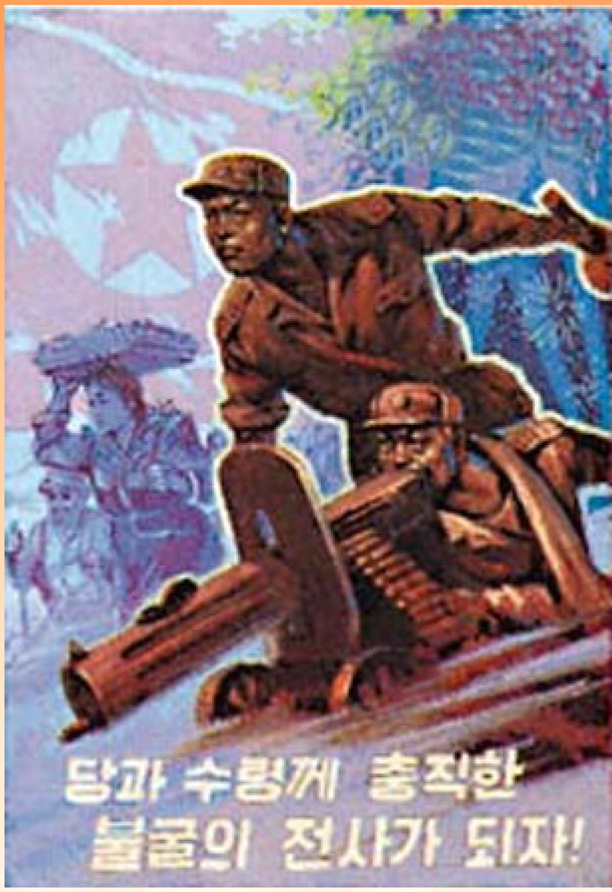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8년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김정일**최고사령관은 무적강군을 키우신 력사에 전무후무한 특출한 실력가이시다. 그이의 지적능력과 활동령역에는 한계가 없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령군풍모에서 특이한것은 군인중심의 무력관이다.

그이께서는 늘 전쟁승리의 기본은 무기보다 그 담당자인 군인이다, 무기를 조종하고 다루는것은 사람이며 사람없는 무기는 한갖쇠붙이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군사력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들이 역할을 다하도록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다.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 령장가문의 군풍을 체득하며 성장하신 그이께서는 군사적 예지와 지략, 조예에서도 뛰여나시다.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더불어 전해지는 일화들은 그 단적실례로 된다.

어느한 구분대의 실탄사격장에서 있은 일이다. 군인들에게 명사격의 묘리를 깨우쳐주고 나신 그이께서는 50메터거리의 나무가지에 10개의 유리병을 달아매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권총으로 연거퍼 다섯발을 쏘아 다섯개를 날려버리고 왼손에 권총을 바꿔잡으신 후 그 속도로 쏘아 나머지 다섯개를 몽땅 박산내시였다. 신묘한 사격술에 탄복하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전투에서 오른손에 부상을 당할수도 있으니 왼손도 그에 못지 않게 숙련시켜두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언제인가는 한 땅크부대를 찾으시고 친히 조종실에 들어가시여 땅크병들에게 경사도에 따르는 운전법과 땅크를 더 개조하여 크고 작은 강들을 다 도하할수 있도록 그 방도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비행사들과 지휘관들을 경탄시킨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비행기착륙을 기다리던 한 비행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동으로 지휘관들이 어쩔바를 몰라할때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만은 여유작작한 자세로 몸소 비행지휘를 하시며 북쪽으로 착륙하게된 비행기를 남쪽으로 내리게 하시였다. 그 당시 북쪽하늘에선 번개가 치며 소나기가 쏟아지고 남쪽하늘 한귀퉁이만이 열려져있었다. 놀라운것은 비행기가 안전착륙하기 바쁘게 남쪽하늘에서도 우뢰가 울고 섬광이 번쩍인것이다. 순간만 놓쳐도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번 하였다.

하늘의 조화를 꿰뚫어보시는 그이의 천재적예지는 참으로 신통하였다.

해병들과 함께 항해도 하시고 복잡한 군사해도를 짚어가시며 그들에게 용감성, 대담성에 기초한 높은 공격정신을 키워주신 이야기들과 군수공장들을 찾으시여 주체전법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무장장비를 개선하고 완성할데 대하여 지도해주신 이야기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명성높은 조선인민군은 바로 이런 실력가형의 위인을 군최고수위에 모시고있다.

희세의 령장을 모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의 무적강군

(평양 주체 89년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외국의 벗들은 조선인민군이 오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꾸바혁명무력성 대외관계부장인 소장 아르날도 따마요 멘데스는 조선의 무장력은 열병식을 통하여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흠모심과 충실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희세의 령장을 모신 조선인민군이 앞으로도 필승불패의 무적강군으로서의 기개를 떨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와 같으신 위대한 령장을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주체사상신봉자들, 인류공동의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에콰도르 ≪볼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띠스 플로레스는 조선의 무장력은 가장 걸출한 군사의 영재,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원수께서 키워 주신 존엄 높은 군대답게 언제나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휘날리며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켜 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동지로 뭉친 전투대오

로동신문

(평양 주체 89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23일부 ≪로동신문≫은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하나의 동지로 굳게 뭉친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며 조선혁명의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군이 하나의 동지를 이룬것은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전체 군인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는 충성의 길에서 생각도 하나, 숨결도 하나, 운명도 하나인 완전무결한 혼연일체의 대오를 이루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전군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뜻을 같이 하는 신념과 의지의 강군이며 그이의 두리에 혈연의 정으로 융합된 뜨거운 동지적사랑의 결정체이며 그이와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 해 나가는 불패의 전투대오이다.

론설은 전군이 하나의 동지로 굳게 뭉친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면모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근본원천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전군이 하나의 동지로 굳게 뭉쳐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있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믿음과 사랑은 전군을 하나의 동지로 굳게 묶어 세운

자양분이다.

그이께서 베푸시는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숭고한 총관, 군인동지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혁명의 총대를 틀어쥔 군인들이야 말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들이라는것,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총관, 군인동지관의 근본핵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령도는 전군을 하나의 동지로 굳게 묶어 세운 근본요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인덕과 군사적자질을 가장 리상적인 높이에서 겸비하신 희세의 장군이시다.

론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동지로 더욱 굳게 뭉치자, 이것이 현시기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며 신념의 표대이라고 강조하였다.

수령결사옹위는 실천의 구호

로동신문

(평양 주체 90년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11일부 ≪로동신문≫은 오늘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인민의 생활과 투쟁과 떼여 놓을수 없는 확고부동한 기본정신, 실천투쟁에서 발휘되는 전 사회적인 풍모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수령결사옹위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풍모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안녕을 보위하는것을 최상의 의무로 간주하고 살며 싸워 나가는데서 높이 발휘되고 있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는 자기 수령의 안녕을 옹위하는 성새, 방패로 굳게 뭉쳐 있다. 전체 인민이 자기 수령의 안녕만을 바라고 수령을 옹위하는 길에서 죽음도 두려움없이 웃으며 맞받아 나가는것이 조선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으로 되고 있다.

수령결사옹위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는 또한 모든 사업과 생활과정이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관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자기 수령의 사상만을 따르고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조선인민의 풍모는 수령의 사상을 체득하고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체질화된 한없이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가는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나날에 뚜렷이 과시되였다.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추호의 양보와 용서도 모르는 확고한 원칙성,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고 구현하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적희생정신, 바로 이것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발휘된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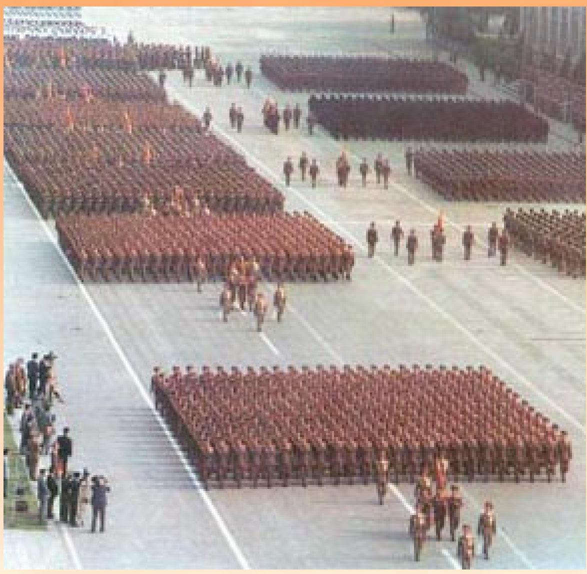
수령결사옹위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는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고 백방으로 다져 나가는데서 힘 있게 과시되고 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해도 오직 수령과 숨결을 같이 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 혁명의 원쑤들과는 끝까지 사생결단하려는 투철한 각오, 수령의 업적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는 고결한 희생성, 바로 이것이 우리 일심단결의 대오에 차넘친 숭고한 정신이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 나가려는 조선인민의 결사의 맹세와 각오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굳세여 지고 있다.

위대한 령장을 국방의 수위에 모신 우리 공화국은 금성철벽

로동신문 사설



(평양 주체 90년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8돐에 즈음하여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8년전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국가기관체계에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높아 진데 언급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고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가 새롭게 정비됨으로써 국방력을 중추로 하여 나라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새형의 사회주의국가정치가 탄생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사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국방위주의 정치, 불패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 차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에 언급하였다.

사설은 자위적국방력의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 사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사업은 한시도 늦출수 없는 중대사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

(평양 주체 90년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항일유격대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한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전투장비로 무장되고 훌륭한 지휘간부들을 가지고 있는 강군이다.

조선인민군의 진두에는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정일**원수동지께서 계신다.

원수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요정낼수 있는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되였다.

이것은 뽈스까공산주의자동맹 ≪프로레타리아트≫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즈비그네브 빅또르가 보내여 온 전문의 일부이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 조선혁명의 주력군으로 키우시여 민족의 존엄과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다함 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날을 따라 높이고 있다.

인디아혁명적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케이. 판카쟉샨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1930년대에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오늘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군사적도발을 짓부셔 버릴수 있게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쥐 우말라또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은 일본군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준엄한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강군으로 자라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고 있을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서 미제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해하려고 덤벼 드는 그 어떤 침략자도 쳐 물리칠수 있는 준비가 되여 있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알렉싼더르 빠우노브는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려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위력에 대하여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마다가스까르투쟁련합당 총비서 란드리암바우 마후바 자까쑤아 막쓰 할바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철의 의지를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군대의 사상적준비상태에 있다는 독창적인 군건설리론을 밝히시고 이를 과학적으로 완성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문무를 겸비한 정치지도자이시며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에 정통하신 군사의 영재이시다.





사회주의보루를 지킨 빛나는 수호의 6년

구국전선 / 기 성 철, 주체90, 5월 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오신 지난 6년간은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킨 영웅적 수호의 6년이었다.

이 시기는 이북에 있어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시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반동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압살함으로써 이 행성위에 사회주의가 없는 일극세계의 질서를 세워보려고 정치군사적 압력과 집요한 경제봉쇄,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했다. 그런데다가 여러해동안 자연재해까지 계속되어 이북은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준엄한 시련 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북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비범한 지략과 탁월한 영군술로 적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시었다.

이북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미제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광분했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방대한 미군병력과 이남의 ≪국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해마다 도발적인 군사훈련 소동을 벌이었고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 대규모전쟁연습만 해도 1994년에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나 32건에 달했고 1995년에는 37건으로 늘어났다. 미제는 제2의 한반도 침략전쟁계획까지 짜놓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적들이 해마다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고 이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해 나설 때마다 조선인민군이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하심으로써 놈들의 침략기도를 산산히 분쇄해 버리시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1994년 12월 이북측 지역에 불법침입한 미군헬기를 단방에 쏴떨구었으며 1997년 7월 강원도 평강군 천암리 앞 군사휴전선 일대에서 있은 적들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철저히 짓부셨다.

특히 1998년에 들어와서 이북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미제의 무모한 침략기도는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지하핵시설의혹≫과 ≪미사일개발≫을 구실로 임의의 시각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작전계획 5027-98≫까지 짜놓고 이미 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98년 12월 조선인민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인민군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경고함으로써 적들의 기를 꺾어놓고 놈들의 침략기도를 물거품처럼 만드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인민군은 불은 불로 다르시며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사실과 도발자에게는 시체와 죽음밖에 안겨질 것이 없다는 이북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뿐아니라 외교적 대결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외교적 대결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적들을 굴복시켜야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고압강경, 자주외교로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고 놈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미제는 이북의 사회주의를 압살해 보려고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있지도 않는 ≪핵개발≫을 놓고 위협공갈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발동하여 집단적인 압력을 가했다.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부추겨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결의안을 채택하게 하고 이북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끌고가 무슨 ≪제재≫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미제를 회담장에 끌어내다 놓고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어 놈들이 옴짝달싹 못한채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명안들을 연속 제시하시었다.

회담장에 끌려나와 막다른 궁지에서 더는 벗어날 수 없게 된 미제는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던 체면도 다 줴버리고 조미기본합의문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클린턴미국대통령은 영도자님께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 보장과 관련한 담보서한까지 올리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항복서나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서까지 받아내게 하신 것은 세계 외교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였다.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후 연락사무소개설과 관련한 협상, 폐연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한 정부간 협상, 경수로제공협상, 미사일협상, 고위급회담 등 이북과 미국간에는 여러 갈래의 협상과 회담들이 계속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이 외교전에서도 조미기본합의문을 이행하도록 미국을 호되게 답새기며 연전연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안녕, 자주권을 세계만방에 떨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고립압살해 보려고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여러 분야에 걸쳐 감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며 미제의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사회주의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적 소유를 굳건히 고수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이북의 사회주의경제는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의 경제토대, 자기의 경제구조를 살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전당과 전민이 간고분투, 자력갱생하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책동에 단호하고도 강경한 자세로 맞서 투쟁하도록 함으로써 적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짓부숴 버리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천재적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미제는 1999년 9월과 2000년 6월 이북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완화를 실행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북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지난 50여년동안 가해오던 제재조치들이 해제되어 일반상품에 대한 무역과 농업, 상업 등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 상업용 선박 및 비행기들의 이용, 일부 금융거래 등이 허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엄혹한 정세와 준엄한 시련 속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군사적 및 외교적 대결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적들의 경제봉쇄,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철옹성같이 다지도록 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참으로 지난 6년간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보루를 지키신 빛나는 수호의 6년이었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론설

(평양 주체 87년 6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4년이 지난것과 관련하여 론설을 실었다.

필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야말로 신념과 의지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오신 불멸의 투쟁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사는 무엇보다도 강철의 신념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인 대를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긍지높은 년대기로 빛나고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로만 억세게 전진시켜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력사는 또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한번 내세운 목표와 결심을 끝까지 실현해오신 불굴의 투쟁력사로 빛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장군님의 의지에 따라 빛나는 결실이 맺어지고 승리만을 새겨온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은 **김정일**동지께서 철의 신념으로 혁명의 앞길을 열어나가실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시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혁명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모든 고난을 앞장에서 헤치시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굳은 확신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하늘같이 믿으며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있다.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사회주의위업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총비서의 5년간의 혁명실록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3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수백년에 대비할수 없이 위대한 혁명실록이 엮어져온 성스러운 년대기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들은 지난 5년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엮어오신 혁명실록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영원할 만년재부로 된다는데 대하여 쓰고있다.

신문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지난 5년간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30여성상은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영광의 력사라면 지난 5년은 조국과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준엄한 폭풍우를 헤쳐오신 빛나는 년대기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나날에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그이의 혁명실록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령도자만이 창조할수 있는 무비의 헌신성과 로고의 결정체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지난 5년간은 조선인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을 절감하게 된 뜻깊은 년대기였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5년은 주체조선의 기상이 세계를 진감시킨 5년이였다.

≪핵의혹≫을 둘러싼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의 승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이 높이 울린 기적적인 사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과시, 이 놀라운 사변들은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거창한 현실을 창조하시는 나날에 문무충효를 겸비한 절세의 위인, 로숙하고 세련된 세계정치의 원로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힘있게 과시되게 되였다.

20세기의 마지막년대를 빛나게 장식한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21세기를 이끄실 위대한 태양≫으로 높은 칭송을 받고계신다.

신문은 지난 5년간에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새기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갈때 백전백승한다는 철리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뭉치면 천만대적도 물리칠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떤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조선인민이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새긴 더없이 고귀한 진리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엮어오신 혁명실록은 나라와 민족의 고귀한 재부이며 인류의 보물고이고 혁명의 만년초석이라고 강조하였다.



붉은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지켜온 5년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5돐에 즈음한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지켜오신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주체83(1994) 년 11월 1일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붉은기사상과 강철의신념,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히 고수되고 승승장구해온 뜻깊은 나날이였다.

론설은 조선인민은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지는 나날에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오신데서 힘있게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붉은기사상은 곧 혁명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견지하여오신 혁명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이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관통되여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확고한 혁명적원칙성을 지니시고 당의 정치적령도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적소유를 굳건히 고수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한것도 그리고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을 배합해나가는 사회주의적방법을 일관성있게 고수한것도 그이의 원칙적인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은 또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오신데 있다. 그이의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 사회주의위업을 떠밀고나가는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위대성은 또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오신데 있다. 하여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고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발구름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게 되였다.

론설은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총비서

(평양 주체 89년 5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을 방문하였던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총비서 하싸눌 하크이누가 귀국에 앞서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령도로 하여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면서 승리를 이룩한다는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조선의 위력을 잘 알수 있을것이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조선식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사회주의의 전도는 양양하며 그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위업,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며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 떨칠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수호의 보검

로씨야에서 토론회

(평양 주체 89년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관한 로씨야련방연해변강지역의 여러 정당, 운동, 단체, 조직들의 련합토론회가 10월 25일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군대지지운동 등 여러 정당, 운동, 단체의 연해변강조직들의 대표들과 열성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방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독특한 정치방식이라고 하면서 이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할것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와 붉은 당기

로씨야정당인사의 글, 로동신문에 게재

(평양 주체 90년 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력사와 시대가 우러르고 세계와 인류가 공인하는 신념과 의지의 최고화신이시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울라지보스또크시위원회 제1비서 울라지미르 보리쏘비치 찌쁠랴예브는 당창건 55돐을 경축한 조선로동당원들에게 드리는 글 ≪**김정일**동지와 붉은 당기≫에서 이와 같이 썼다.

이 글은 ≪로동신문≫(4일부)에 게재되였다.

필자는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가 백수십년간 흘러 왔지만 20세기 90년대처럼 당들의 신념문제가 그 존망에 직결되는 중대사로 제기된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이 준엄한 력사적시기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당의 불패성을 떨치며 세계공산주의운동에 사상정신적생명수를 준 당이 조선로동당이라고 썼다.

필자는 조선로동당은 신념으로 살고 신념으로 투쟁하며 신념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신념의 당이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이 바로 이 신념의 뿌리에서 솟아 오른것이였다고 썼다.

필자는 신념이 조선로동당의 위력의 생명원이라면 그 특질은 신념의 백절불굴성이라고 하면서 90년대에 가해 진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책동도 공화국의 군사력과 조선로동당의 붉은기앞에 대방이 흰기를 들고 나오는것으로 막을 내렸다고 썼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절대불굴성, 절대불변성,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신념의 위대성이 있고 이 위대한 신념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이 백전백승하였다고 나는 주저없이 말하게 된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신념, 여기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을 감복케 하는 조선로동당원들의 신념의 특질이 있고 진가가 있었다.

오늘에 내가 본 조선의 현실은 당이 신념이 강하면 인민이 신념의 강자로 되고 사회주의가 영원히 솟아 있다는 진리를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기였다는것이다.

필자는 당의 신념은 곧 수령의 신념이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강철의 신념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들이시라고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혁명사를 연구해 보면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붉은기의 한생이였다.

그 분의 한생은 조선혁명이라는 배를 타시고 붉은기의 신념과 락관을 무기로 하여 피바다, 불바다, 재바다를 헤쳐 오신 붉은기의 한평생이였다.

선대수령의 신념은 곧 후계수령의 신념이였다.

나는 선대수령에 대한 특출한 충정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동지의 심장우에 덮어드리신 그 붉은 기폭에서 선대수령이 추켜 드시였던 붉은기를 계속 높이 들고 기어코 사회주의승리의 종착점에 가닿으시려는 후계수령의 투철한 신념의 맹세를 보았다.

진정 조선의 붉은기는 **김정일**동지의 신념과 의지의 붉은기였다.

필자는 신념이 강하신 희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신념이 강하고 당의 신념이 강하여 조선의 군민이 신념의 강자로 되며 조선식사회주의가 성새처럼 수호되고 억세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한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평양 주체 90년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1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발표 8돐에 즈음하여 론설을 실었다.

주체82(1993)년 3월 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궤변의 반동성과 허황성을 백일하에 폭로하고 사회주의를 신념화, 도덕화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고 있다.

론설의 필자는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 현명성은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적 궤변들을 철저히 짓부셔 버리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신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이 있었기에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비난하던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이 총 파산되게 되였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붕괴에로 이끌어 간 사회주의배신자들의 궤변의 반동적본질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였다.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에 대한 사상리론,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사상리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리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는데서 제기되는 새로운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이다.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전체 인민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신데 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신념의 강군, 의지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전체 인민이 인민군군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따라 배우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미대결전에서 쾌승

현세의 한울림

90년대초반부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세계 진보적 인류가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북을 정치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사회주의보루로 부상된 조선을 말살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저들의 ≪새로운 질서≫를 세계적판도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과 세계양심이 용납 못할 도전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운명의 결전은 미국과 이북과의 대결로 조선반도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북의 ≪핵문제≫를 빌미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오던 미국은 드디여 주체82(1993)년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재개를 공포하고 20여만의 대병력과 핵탄투하를 전문으로 하는 전략폭격기, 초대형항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함선들, 여기에 이남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리였습니다.

그때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남에서 이 정세를 지켜보던 저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지러운 폭음속에서 일찍이 체험해본적없는 긴장감을 느끼였습니다.

미국이 ≪핵사찰≫을 구실로 이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해졌습니다. 이북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남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한≫미연합군의 ≪팀 스피리트≫협동군사연습이 미친듯이 고조되던 3월 8일에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었습니다.

영도자님께서는 명령에서 이렇게 언명하시었습니다.

>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됨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소탕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다.
>
>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
>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것이다.≫

그때 저는 이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강경대응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전쟁을 불사한다는 견결한 자세였습니다.

그때 저는 희세의 용장을 우러러 감복하면서도 이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3월 12일에 이북에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는 이 대결정세를 돌려세울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뿐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상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오히려 수그러드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이북의 준전시상태선포와 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은 숨죽이고 조선을 주시하던 세계를 깜짝 놀래우고 그야말로 경천동지의 폭풍같은 반영으로 갑자기 국제사회를 들끓게 하였습니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조선지도자의 영도예술의 극치≫, ≪폭탄선언≫, ≪북조선의 정치사상적 , 군사적 힘의 과시≫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조치에 전적인 지지찬동을 보냈으며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조선의 당당하고 강경한 대응과 불굴의 기상앞에 미국은 일거에 압도되고말았던것입니다.

당시 미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는 ≪북조선이 이처럼 강력한 태도로 반격해나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북조선은 단결력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어떠한 타격을 가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워싱톤 타임스≫지는 ≪미국이 북조선을 공습할 경우 북조선은 화물선에 핵장비를 싣고와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조선을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기일을 앞당겨 중지했고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소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3월 24일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데 대한 명령을 내려 조미간의 정치군사적대결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간 조미사이의 군사적대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북은 모든 예상을 뒤엎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도 있는가. 실로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영도자님의 군사적 예지와 지략에 대하여 탄복하게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영도자님께서는 소리없이 즉 총포성을 울리지 않고 승리하신다는 그 점을 높이 찬양하고싶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조미간의 군사적대결도 그랬고 작년에 적들이 이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따르는 정세긴장과 핵사찰을 운운하면서 군사정세를 긴장시켰던 때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면 흔히 거기에 동원되는 인적, 물적 력량에 대한 손실을 보면서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역사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특이한 기록도 남아있고 또 그런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전이승상지상(不戰而勝上之上)≫이라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으뜸가는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지만 영도자님께서는 번마다 명령이나 성명으로 적들의 기도를 물거품되게 만들어놓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영도자님이시야말로 제갈공명도 따를수 없는 군사적 예지와 지략을 지니고계시는 명장이시라고 속으로 탄복하군합니다.

주체85(1996)년에도 저는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해 정초부터 미국은 핵잠수함 ≪버밍햄≫호와 그리고 2월에는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남조선해역과 조선동해에 출동시키면서 ≪연합대잠수함훈련≫과 ≪밸리 언트 아셔 96-2케이≫해군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으면서 미국방장관은 이른바 ≪년례방위보고≫라는데서 ≪미국의 사활적이익을 위태롭게≫하는 위협을 억제할뿐아니라 ≪싸워서 승이해야 한다. ≫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한편 남조선괴뢰들은 륙해공군의 대병력이 참가하는 ≪호국 96≫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미국에 장단을 맞추어 남북관계문제는 ≪군사력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큰물피해로 인한 공화국의 난관을 북침전쟁도발의 호기로 보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고갔습니다.

이때에도 이북에서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하여 적들을 혼비백산케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이 이북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담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성명이나 말들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튼튼히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인이 공인하고 있은 것처럼 이북은 군사대국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북은 무력수에서 대단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군대의 정신상태를 역사의 어느 군대도, 현세의 어느 군대도 따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북이 군사대국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보다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계신다는데 있습니다.

조미간의 대결에서 조선은 언제나 미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정전은 국제법에도 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선반도의 특수한 전쟁상황에서 허다한 대소군사적충돌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아릴수 없는 적들의 도발사건들에서 조선인민군은 한번도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명장은 두번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명장이라도 한번은 패할 수 있다는 말이며 그 패배에서 교훈을 찾고 두번은 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번까지 패하면 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도자님께서는 조미대결에서 한번도 패한 일이 없는 그야말로 천출명장이십니다.

영도자님께서는 군사대결의 승리로 미국을 조미회담장으로 끌어내신 이후 회담장을 통한 핵대결전에서도 특출한 정치감각과 예지, 신축담대한 외교적수완으로 세인을 경탄케 하였습니다.

3단계에 걸친 회담과정과 그 성공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외교사적으로 됩니다. 저는 그것을 20세기에 이룩된 하나의 신화라고 말하고싶습니다.

특히 이북측의 흑연감속로의 경수로대체제안과 그 관철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영도자님 특유의 영단입니다.

그리하여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3계단 조미회담에서는 북의 흑연로체계를 경수로체계로 교체하는 문제, 조미사이의 정치, 경제관계 정상화문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문제, 핵확산방지체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문이 채택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북외교의 쾌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대통령이 조선의 국호를 정식 국호로 지칭하고 **김정일**영도자님을 ≪최고지도자≫로 경칭하면서 영도자님께 공약리행을 담보하는 이례적인 공식서한까지 송정한 것은 영도자님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에 대한 공경의 표시인 동시에 미국의 굴복을 의미합니다.

조미회담과정을 지켜보던 이남의 한 대학교수는 조미회담과정을 마치 ≪미국이라는 거인이 소인의 손바닥에서 노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협상외교의 극치≫로 묘사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이에 대하여 국교관계가 없는 적대국이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으로부터 담보서한을 받아낸것은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승리를 공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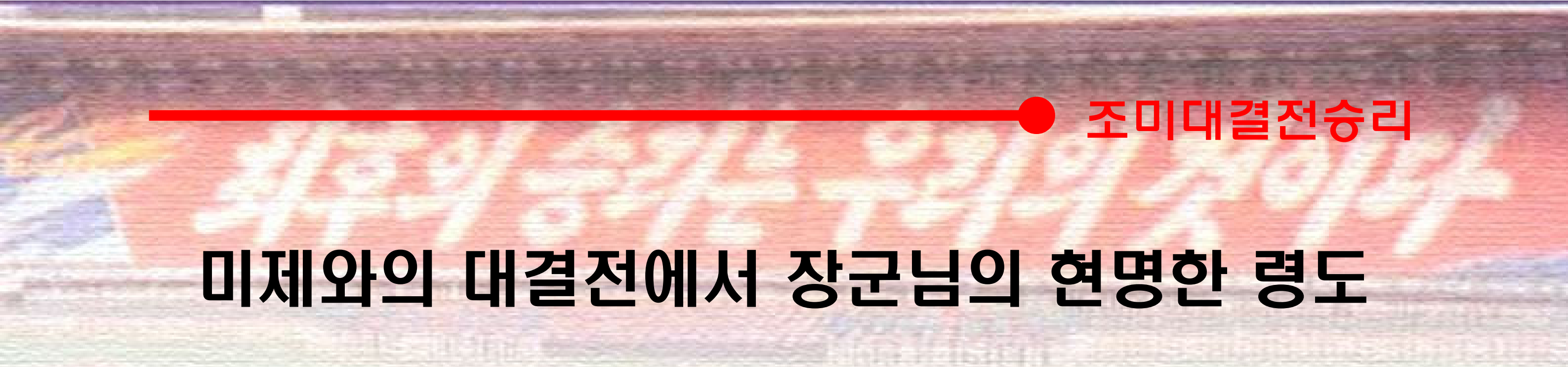
또한 ≪쏘련붕괴후 북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고 한 미국의 ≪힘의 정책≫이 파탄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제도를 ≪보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북의 승리를 격찬하였습니다.

이북은 조미회담에서 승리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다시 한번 극적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김정일**영도자님의 위상은 더욱더 거시화되고 그 영향력은 세계적판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조선중앙통신

(평양 주체 87년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30여년간 당과 국가, 군대사업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반제반미투쟁의 력사에 기록된 승리의 년대들에서 1960년대는 우리 조국이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산의 장군이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승리의 년대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주체57(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작전도 앞에서 미제와의 대결전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단호한 선언을 드팀없이 관철하시려는 철의의지를 지니시고 펼쳐나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완강한 실천력에 의하여 세계의 주시속에 첨예하게 벌어진 대결전에서 미제는 우리 공화국앞에 사죄하고 무릎을 꿇었다.

일찌기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속에서 위대한 령장의슬기를 키우시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전략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우리 장군님의 걸출한 령도는 주체58(1969) 년 ≪e c -121≫대형간첩비행기침입, 주체65(1976) 년 ≪판문점사건≫때에도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릴 때마다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횡포해진 놈들과의 대결전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1990년대에 우리 혁명무력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영광속에서 장군님의 령도밑에 미제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총포성없는 첨예한 대결전에서 승리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였다.

우리에 대한 ≪핵문제≫를 걸고 ≪특별사찰≫을 강요한 미제의 도발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의 하달, 련이어 공화국정부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성명의 발표등 미제에게 안겨진 무자비한 타격은 놈들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세계는 우리 장군님의 필승의 기상과 무비의 담력에 한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에서 승리에로 이어진 우리의 백전백승은 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천재적지략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는 백전백승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주체조선은 어제도 승리하였고 오늘도 승리하고있으며 래일도 승리할것이다.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경수로완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의 리행을 확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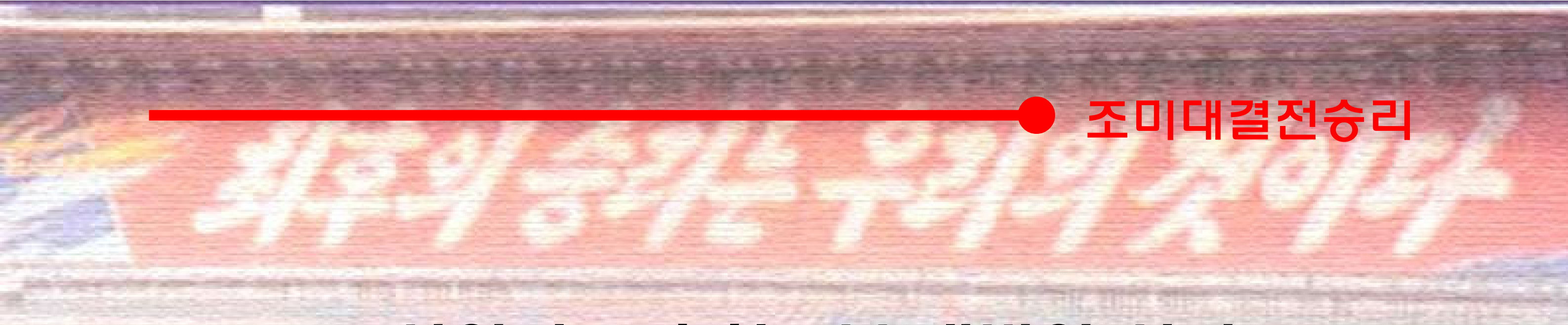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제가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2일 우리의 립장을 엄숙히 선언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공화국을 군사적으로 말살하려는 미제의 오만한 침략기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 왔던 미국대통령 클린톤은 전례없이 미제침략군 부대들의 동원태세와 비행대의 출격준비상태까지 최종점검하면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미국은 미국민과 우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능력도 있다"고 호언하였다.

사대와 굴종으로 명줄을 이어온 남조선괴뢰역도는 상전의 호언에 비위를 맞춰가며 지하시설사찰에 응해야한다고 주제넘게 지껄여대고 있으며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탄도미싸일발사라고 못되게 나발을 불어대던 일본반동들 역시 또다시 발악적으로 나오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우리의 지하시설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단호한 대응 을 취하겠다고 폭언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요즘 미군부에서 북조선으로 쳐들어갈 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고있다 는 보도와 함께 지난 조선전쟁에서 참패당한 것을 복수 한다는 이른바 제2의 조선 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 의 내용들이 제3국의 출판물들에까지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3국의 출판물을 통하여 입수한 5027작전계획 에 의하면 북침을 노린 제2의 조선전쟁은 모두 5개의 단계로 나누어 감행된다고 한다.

1단계는 억제 단계로서 그 누구의 행동을 억제 한다는 구실 밑에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미제침략군무력을 집결시켜놓고 공화국북반부의 공중과 해상, 국경을 봉쇄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는 작전단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계의 작전은 사실상 이미 시행되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2단계는 무력화타격 단계로서 방대한 야전포병무력과 비행대, 순항유도무기들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공중타격전으로 우리를 무력화 시킬 것을 노린 작전단계이다. 지금 미제는 이 단계의 작전을 위해 우리주변에 비행대를 비롯한 해공군 무력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은밀히 집결시켜놓고 각종 훈련과 연습으로 그 타격방법을 숙련시키고있다.

3단계는 지상공격작전 단계로서 공화국북반부의 동서 량해안에 대한 대규모적인 상륙작전과 항공륙전작전, 직승기륙전작전, 특공대작전을 배합한 전면적인 지상공격작전으로 우리 혁명의 심장인 평양에 대한 작전적포위를 실현하고 청천강계선까지 점령 하는 작전단계이다.

4단계는 전쟁성과확대 단계로서 청천강이북의 공화국북반부 전역을 점령 하며 5단계는 종전 단계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되여있다. 미제는 이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침략군 54만5000여명과 남조선괴뢰군63만여명, 항공모함전단 5~7개, 스텔스전투폭격기 F－117, F－111,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폭격기 B－1, B－2, B－52 를 비롯한 현대적인 첨단장비들과 대형타격수단들을 투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는 방법이 3가지로 설정되여있는 바,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다가 그 연장선우에서 타격을 가하는 방법, 우리의 핵의











혹시설 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하는 방법 그리고 정세를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다가 정세악화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하는 방법 등으로 전면전쟁을 유발시키게 되여있다.

최근에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방성 우두머리들과 미태평양군사령관, 륙해공군 구성군사령관들, 1, 3군단장과 미7함대사령관, 1, 3해병원정부대사령관 등을 비롯하여 조선전선에 투입하게되여있는 군사령관들을 남조선지역에 련속파견하여 작전계획의 현실성을 현지에서 검토하는 한편 R S O 198 , 을지포커스렌즈98 , 독수리 98 등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요즘 미제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지하핵시설 문제와 인공지구위성 발사로 인한 정세악화 설을 요란스럽게 들고나오는것은 바로 5027작전계획 에 따르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있다. 미국이 이처럼 잠시나마 뒤집어썼던 유화 와 관여 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5027작전계획 시행에 나서게 된 리유는 명백하다. 고립압살전략으로도, 개혁 과 개방 에로 유도하기 위한 유화전략 으로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지 못하게되자 드디여 분별을 잃고 무모한 모험에 나서게된 것이다.

원래 우리의 혁명무력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려고 꾀하고있는 미국이 들고 나온 유화정책 에 크게 기대를 가진 적이 없으며 더우기 우리가 내놓은 군부장령급회담까지 외면해 버린 교전상대방인 미국의 처사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해왔다. 오늘 조성된 제반사태는 우리 혁명무력의 예리한 경계심과 혁명적 립장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불을 불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며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미제는 어리석게도 저들의 무모한 작전계획을 내돌리는 것으로 그 누구의 기를 꺾어보려하지만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작전계획이있다.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 이요 하는 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행성 우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한다.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마당에서 5027작전계획 의 실행을 주도하는 미제침략군 뿐아니라 총알받이로 앞에 나서려는 남조선괴뢰들과 뒤에서 기지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일본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 모두가 우리의 타격목표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한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제가 대화 와 협상 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 할 것이라는 것을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엄숙히 선언한다.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87(1998)년 12월 2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사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났다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10일과 11일 미국국무장관 알브라이트와 회담하였다.

회담에서는 쌍방이 호상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이 교환되였다.

특사는 11일 미국국방장관 코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담화에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회담과 담화는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강석주제1부상과 미국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사이의 회담 진행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특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나라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과 미국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인 대조선정책조정관 셔맨사이의 회담이 10일과 11일에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가 심도있게 론의되였다.

회담은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2000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톤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조미공동콤뮤니케 발표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의 미합중국방문끝에 12일 워싱톤에서 발표된 두 나라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이와 같이 강조되여 있다.

공동콤뮤니케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책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는 쌍방이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고 미싸일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여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는것이 공동콤뮤니케에 또한 밝혀 져 있다.

중국과 로씨야 조미공동콤뮤니케를 환영

(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과 로씨야가 조미공동콤뮤니케를 지지환영하였다.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조미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된것과 관련한 론평에서 중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언제나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로슈꼬브는 이따르-따쓰기자와의 회견에서 ≪평양과 워싱톤사이의 대화는 중요한 성격을 띠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위원장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담화



김정일위원장 미합중국 국무장관과접견

(평양 주체 89년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3일 조미관계개선에 대한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를 접견하시였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접견석상에서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은 **김정일**령도자께 보내온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해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진지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위원장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

(평양 주체 89년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3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관람하시였다.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와 그 일행이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함께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우뢰와 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축포가 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배경대에 새겨지고 경기장바닥은 춤률동과 환희의 꽃물결로 끝없이 설레이였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혁명력사와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특색 있는 형식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오르고 축포가 올랐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위원장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위하여 만찬 마련

(평양 주체 89년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를 위하여 23일 저녁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회에는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함께 수행원들이 초대되였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과 김계관부상이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또다시 만나시였다

(평양 주체 89년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4일 미합중국 국무장관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를 또다시 만나시여 담화하시였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국무장관의 수행원들인 국무성 대사 웬디 셔맨,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스탠리 로스, 국무성 전파방지담당 차관보 로버트 아인혼, 국무성 조선반도평화회담 전담특사 챨스 카트맨, 대통령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상급국장 잭크 프리챠드가 참가하였다.

접견에서는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은 조선측이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 진행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수도의 중심부에 있는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열병식 및 군중시위 참가자들이 정렬해 있었다.

광장에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화가 모셔 져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 만세≫,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천지를 진감하였으며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날아 올라 수도의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영남, 김영주, 박성철,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사령관들,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주석단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표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편지전달계주단,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성원들, 해외교포인사들이 초대석에 나와 있었다.

초대석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와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나와 있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이 연설을 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열병총지휘관인 김정각상장이 김영춘총참모장에게 열병부대들이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영춘총참모장과 열병총지휘관은 열병부대들을 순회하면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고 힘차게 화답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 김영춘총참모장이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것을 보고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고 ≪**김정일**≫, ≪결사옹위≫, ≪조국통일≫이라고 합창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라는 구호를 힘차게 불렀다.



열병식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김일성**주석의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 섰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김일성**주석의 초상기를 우러러 일제히 ≪영접들어 총≫을 하며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로선의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군사학교종대들, 륙해공군부대종대들, 근위제1보병사단, 근위서울 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비의 군공을 세운 근위부대종대들, 혁명학원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갔다.

이어 로농적위대종대들과 붉은청년근위대종대들이 광장을 씩씩하게 행진해 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열병부대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을 높이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열병대오가 지나가는 수도의 거리에서는 각계층 시민들이 열병식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열병식에 이어 광장에서는 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선두로 당기발대렬과 환호대렬, 봉화홰불대렬, 행복춤대렬, 영웅, 공로자대렬, 소년단대렬, 붉은기춤대렬 등 시위대렬들이 가장물과 그림판, 각종 구호들과 함께 나아갔다.

군중시위참가자들은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을 이룬 주체혁명대오의 혁명적기상과 존엄 높은 조선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박력 있고 우아한 률동에 담아 펼쳐 보이면서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꽃다발을 흔들며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수백발의 축포가 터져 올랐으며 수천개의 고무풍선이 날아 올랐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한 연설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차수 김영춘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뜻깊은 당창건 55돐을 경축하여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당, 전군, 전민의 혁명적풍모를 힘 있게 보여주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일성**주석께서 광복직후에 제때에 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영광찬란한 로동당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자기발전의 자랑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강철의 당으로, 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참모부,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다.

그는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최근년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은 세기적인 기적은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하겠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는 혁명의 철리를 언제나 명심하고 불패의 군력을 다지고 다져 원쑤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 버리고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김영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의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선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창건경축행사에 참가할 남측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 평양 도착(상보)

(평양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남측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민주로동당 부대표들인 김혜경, 로희찬, 자주통일위원장 최규엽, 사무부총장 정성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상임의장 오종렬,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의장 박정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대외협력위원장 리옥순,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부위원장 김영대, 건설산업로조 위원장 리용식, 녀성로조련맹 위원장 정인숙,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통일국장 김영제, 로동조합총련맹 위원장 리남순, 국제부장 안봉술, 자동차로련위원장 강성천, 금속로련 위원장 유재섭,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림기란, 공동의장들인 박용길, 권오헌, 총무 남규선, 전국농민회총련맹 조국통일위원장 홍범, 부의장 정현찬, 강원도련맹의장 김종유, 정책실장 리종화, 민족예술인총련합 부회장 김용태, 기획실장 박인배, 지도위원 조성우, 녀성단체련합 상임대표 지은희, 공동대표 리경숙, 평화통일위원장 정현백, 전국교직원로동조합 위원장 리부영, 통일맞이 늦봄 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정책실장 김창수,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 직무대행 주영채,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오훈동,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종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회장 신광수, 사무총장 박준호, 사무국장 리지범, 향린교회 담임목사 홍근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 상지대학교 총장 한완상, 목원대학교 전 교수박순경, 현대아산 부사장 김고중, ≪말≫잡지사 기자 신준영이 왔다.

비행장에서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김령성,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진수,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조선녀성협회 회장 홍선옥,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호, 조선종교인협의회 상무위원 황병준이 남측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조국통일≫, ≪환영≫이라는 구호를 부르고 꽃다발을 흔들면서 그들을 환영하였다.

또한 이날 신문 ≪한겨레≫ 취재단이 비행기로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방송≫취재단이 평양에 왔다.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이 10일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살아서 돌아 오지 못하면 죽어서 넋이라도 안기고 싶었던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겨 각별한 환대를 받으며 매일 매시각을 보내고 있는것만도 황송함을 금할수 없는데 경사로운 당창건 55돐 중앙경축행사 대표로까지 불러 주시니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슨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비찬점 스며 들지 않는 캄캄한 철창속에서 오랜 세월 신념과 량심을 지켜 끝까지 싸울수 있은것은 바로 저희들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불패의 우리 당이 마음의 기둥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삶의 전부를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보낸데 대하여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여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가장 위대한 당, 가장 존엄높은당, 가장 따사로운 어머니당의 슬하에서 당의 전사로 살며 싸워 온 가장 값높은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였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령도자와 당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정치적생명을 지킬수 있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설수 있지만 난관앞에 굴복하고 유혹과 회유에 흔들리면 더러운 변절과 배신의 길에 굴러 떨어 진다는것이 3, 40여년간의 옥중투쟁기간에 저희들이 체득한 진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생을 당을 믿고 싸워 온 혁명가들이라고, 빼앗긴 청춘을 되찾아 주고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한 삶을 안겨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거듭거듭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니 아무 한일도 없는 저희들은 정말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뜨거운 은정속에 하루를 보내고 새날을 맞으면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랑속에 또 하루밤을 자고 나면 새 사랑에 접하게 되는 이 위대한 사랑의 품에서 전사들은 장군님의 존함만을 목메여 부를뿐입니다.

우리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맹세합니다. 누리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할 혁명전사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강성부흥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늙고 병약한 몸이나마 깡그리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경 조선로동당창건 55돐 축≫ 서울대학교 교내에 현수막 출현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10일 서울대학교 교내에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 대학교 학생회관옆에 나 붙은 북녘문화유적답사 서울대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가로 7m, 세로 1m 크기의 노란색바탕의 현수막에는 ≪경 조선로동당창건 55돐 축≫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내 조국의 강대함을 더욱 깊이 느끼였다

(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여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본 해외동포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원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기석실장은 끓어 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민이 우러러 흠모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총사열대에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는 대서사시적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숭배심을 지니고 그이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진두에 서계시는 한 우리 조국은 영원히 부강번영할것이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 단장인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량수정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조국을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안고 지축을 울리며 도도히 굽이치는 열병대오, 조국의 수호자, 사회주의건설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우리 군대의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조국의 강대함을 더욱 깊이 느끼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못해낼것도, 두려울것도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것이 군중시위를 통하여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굳은 신념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김광연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니 그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수 없는 민족적긍지와 영예감이 가슴속에 고동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강하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세상에서 으뜸 가는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 세계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진행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12일 저녁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장은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로 차고 넘쳤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만세≫의 폭풍 같은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환영의 꽃물결이 세차게 설레였으며 축포가 터져 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배경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새겨 졌다.

김영남,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주석단관람석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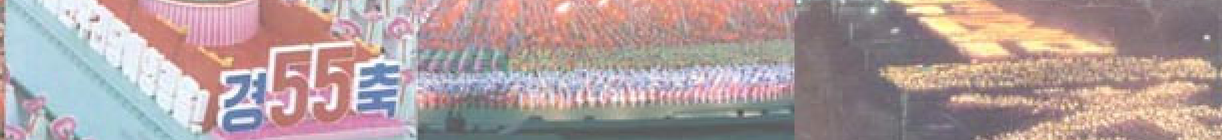
주석단관람석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가 나왔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편지전달계주단, 총련의 여러 대표단, 방문단성원들, 해외교포인사들이 초대석에 나와 있었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관람에는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와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배경대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가 새겨지고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를 상징하는 ≪ㅌ.ㄷ≫라는 전광글발이 서서히 올라 경기장상공의 봉화대에 불을 지폈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시작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신념의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당의 령도따라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향하여≫, ≪영원히 번영하라 조선로동당≫ 등 여러개의 장으로 구성되여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구가하는 장면들과 글발들이 배경대에 새겨지고 경기장바닥과 특수무대들에는 기백 넘치는 집단체조와 아름다운 춤률동이 장쾌한 음악선률에 맞추어 화려하게 펼쳐 졌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성과 조직성, 세련된 기교와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10여만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고 밤하늘가에 축포가 터져 올랐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본 외국인들 반향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본 외국손님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 하면서 자기들의 격정을 토로하였다.

꾸바혁명무력성 대외관계부장인 소장 아르날도 따마요 멘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석단을 우러러 씩씩하게 나아 가는 열병대오와 환호를 올리며 격정을 터뜨리는 시위군중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흠모심과 신뢰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 오늘의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조선의 무장력과 인민이 굳게 단결되여 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째인 행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에서만 할수 있다.

조선인민의 일심단결된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리사장 이노우에 슈하찌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통하여 수령, 당,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나라 조선의 참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발을 동동 구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조선의 현실은 당이 위대할 때 나라도 위대한 나라로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이 현실로 꽃 핀 조선의 모습에서 인류는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내다 보고 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국가 대사 샤히르 무함마드 아브둘라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면서 조선인민이 지닌 사상과 단결, 락관의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더욱 깊이 느낄수 있었다. 나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나아 가는 조선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도 빛나게 건설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 나라 주재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관 부링 탕은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완전무결하고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의 무장력과 인민의 숭배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뜨겁게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여러 존칭으로 높이 칭송

(평양 주체 87년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칭송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열렬해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친애하는 지도자≫, ≪인민의 지도자≫로 친근하게 불러왔으며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장군님≫, ≪천출명장≫, ≪전설적위인≫, ≪혁명과 건설의 영재≫, ≪자애로운 어버이≫를 비롯한 많은 존칭들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는 30여성상의 혁명활동력사를 찬란히 수놓아오시면서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사상리론의 거장≫, ≪걸출하신 령도자≫, ≪무적필승의 령장≫, ≪인덕의 최고화신≫, ≪21세기를 향도하실 수령≫과 같은 존칭들을 많이 쓰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을 때에 ≪백두성≫, ≪광명성≫, ≪백두광명성≫으로 칭송되여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존칭들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겨나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도자에 대한 전례없이 수많은 존칭들이야말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희세의 위인상에 매혹된 만민의 세기적칭송의 뚜렷한 표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위대한 혁명가이신 **김정일**동지의 필승의 기상과 영웅적기질, 드놀지 않는 억센 신념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닮으신것으로 칭송하고있다. 그들은 **김정일**동지를 백두산과 결부시켜 ≪백두산의 아들≫, ≪백두산의 장군≫, ≪백두산형의 인간≫, ≪백두산을 닮으신 위인≫, ≪고난을 웃음으로 이기시는 백두의 령장≫, ≪백두산의 태양≫과 같은 존칭들을널리 쓰고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사색, 비범한 통찰력과 분석판단력, 해박한 지식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인류의 사상리론적재부를 풍부히 하신 불멸의 업적에 탄복한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사상의 대가≫, ≪인류가 낳은 사상리론의 거장≫, ≪현시대의 으뜸가는 정치철학을 가지신 철학가≫ 등으로 높이 우러르고있다.

≪비상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지도자≫, ≪특이한 령도예술을 소유하신 령도자≫, ≪령도의 거장≫, ≪천리혜안의 과학적예견성을 지니신 위인≫, ≪실천가형의 위인≫, ≪창조의 상징≫, ≪다재다능하신 령도자≫를 비롯한 많은 존칭들은 **김정일**동지의 세련되고 로숙한 령도예술에 대하여 격찬하는 표현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꾸바의 당 및 국가 지도자인 피델 까스뜨로동지는 경제부문을 참관하면서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술공연을 보니 ≪문학예술의 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으며 ≪근로하는 로씨야≫운동 집행위원회 위또르 안뻴로브위원장은 현시대의 단연 으뜸가는 주체의 정치철학을 지니고 30여년간 당을 령도하신 ≪정치원로≫이라고 칭송하였다.

무비의 담력과 뛰여난 군사적지략을 지니신 **김정일**동지를 항일혁명투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두산의 장수≫로, 1965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대통령은 ≪젊은 사령관≫으로 칭송하였으며 오늘은 온 세상이 ≪천하제일명장≫, ≪비범하신 군사전략가≫, ≪무적필승의 령장≫, ≪현시대의 가장 걸출하신 령장≫, ≪실력가형의 장군≫ 등으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인덕에 매혹된 사람들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열렬한 사랑의 인간≫, ≪운명의 보호자≫, ≪인덕정치를 베푸시는 정치지도자≫와 같은 존칭들을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쓰고있다.

≪조선의 태양이실뿐아니라 세계의 태양≫, ≪21세기의 태양≫, ≪자주적인민의 구세주≫, ≪우리 행성의 수호신≫, ≪사회주의의 상징≫, ≪문무재덕을 겸비하신 정치가≫, ≪불세출의 령도자≫, ≪만민의 하늘≫을 비롯한 존칭들에는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제일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희세의 위인상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캄보쟈왕국 노로돔 시하누크국왕은 축전에서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였고 이딸리아국제대외교류재정그룹리사회 까를로 바엘리리사장은 자기가 쓴 책에서 ≪현시대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하였으며 미합중국 빌 클린톤대통령도 담보서한에서 ≪최고지도자≫라고 썼다.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은 인류가 높이 모신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면서 그 빛발따라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위성발사는 **김정일**총비서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

남조선각계

(평양 주체 87년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춘천시에 사는 과학자 김형국은 얼마전 이른 새벽 상공을 날으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동료들에게 ≪저하늘의 위성을 보니 동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이라면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이다. 그래서 과학분야에서 내노라하는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못낸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100프로 제힘으로 개발하여 쏘아올렸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북에서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는 민족의 존엄이 세계에 과시되고 겨레의 슬기와 힘이 만방에 떨쳐진 쾌거이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는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지도력의 소산이다.

남조선의 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김봉운은 ≪이북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국위를 더 높이 선양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작은 나라가 그것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속에서 단신으로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운반로케트와 위성을 자체의 지혜와 기술, 힘으로 개발하여 첫 발사를 성공시킨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같은 일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주를 주체식으로 개척할 휘황한 청사진을 펼치시고 과학기술진과 우주정복을 위한 튼튼한 공업적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재야정치인 박영빈은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준민족적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위성발사 상황을 상세히 전하는 평양방송을 들으면서 ≪정말장하다. 그러면 그렇테지≫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가 할것없이 기뻐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김정일총비서 칭송, 쏘련공산당리사회성원

(평양 주체 88년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여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리사회성원 겸 리사회 검열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퇴역장령인 울라지미르베료진이 장군형위인이 있어 강성사회주의가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김정일**동지는 자기가 일생을 두고 숭배하여마지 않는 장군형위인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는 방대한 령토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쏘련은 위인이 없어 순간에 무너졌지만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은 위대한 장군이신 그이께서 계시여 존엄높은 사회주의나라로 우뚝 솟아 빛나고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 선군정치에 시종일관한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군대를 무적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여 군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오신다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의 허장성세를 눈아래로 굽어보시다가 단 한마디의 폭탄선언으로 일격에 적들을 꽉 눌러놓으시고 조선의 위력, 사회주의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신 그이는 진정 담력가형의 장군, 무적의 장군이시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그 어떤 공세와 난관에 련속공격으로 맞받아나가는것을 령도적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그이께서는 올해에 조선이 나아갈 새로운 공격좌표를 그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지구를 들었다놓은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강성대국건설에로 나아가는 진격의 장엄한 서곡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이자 사회주의이고 사회주의이자 조선이며 강성대국조선은 곧 강성사회주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장군다운 도량과 의리, 장군다운 사랑과 믿음으로 사회주의보루를 일심단결의 불패의 성새로 다지시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강성사회주의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 칭송, 군사평론가

(평양 주체 88년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이 ≪한민전≫서울시위원회의 통보를전한데 의하면 군사평론가 장명진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군사의천재로 높이 칭송하였다.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유고슬라비아사태와 (한) 반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그는 지금 미국의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유고슬라비아공습과 같은 수법으로 이북을 압살하려고 했다가는 도리여 참패를 면할수 없다는 패배론에 빠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뽐내며 유고슬라비아련방과 이라크에 대한 폭격과 미싸일타격에 광분한 미국이 이북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것은 바로 이북에 지구촌 그 어느 대적과도 맞서 싸워 이길수 있는 무적필승의 인민군을 키우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은 이북군을 세계최강의 정예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령장이시고 군사의 천재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군령도업적을 칭송

(평양 주체 88년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무력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목소리가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정치학 교수 최민봉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동서고금의 력사에는 이름난 장군들이 적지 않지만 초대강국들의 련합세력을 단독으로 눌러버리신 **김정일**령수와 같으신 세계적인 령장은 일찌기 없었다.

1993년 3월 북미간의 핵대결은 동서대결이 북미대결로 압축된상황에서 벌어진 력사에 총성없는 15일간의 세계대전≫으로 기록되고있다. 그것은 실로 일당백의 대결전이였다.

가장 파국적인 핵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분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서울 관악구에서 활동하고있는 소백수회 회원들이 조직한 사진전시회를 돌아본 재야인사 박경문은 ≪**김정일**령도자님의 인격과 인품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긴했지만 이렇듯 출중한 인격과 인품을 지니고계신줄은 몰랐다. 그분의 존안에는 백두의 기상과 정기, 담력과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고 말하였다.

전쟁사연구원 김명일은 ≪오늘 이북군이 미군도 두려워하는 철의 장군으로 될수 있은것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을 군민의 최고수위에 모셨기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의 군수뇌들이 그이를 세계적명장으로 격찬하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국군≫ 제28사단소속부대 상병 김영기는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탁월한 군령도로 군인들을 한등급이상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막능당의 강군으로 키우셨다.

이북군을 오늘과 같이 막강한 힘을 지닌 최정예군인집단으로 키우신 **김정일**최고사령관이시야말로 천재적인 군령도예술가이시고 천하으뜸의 대장군이시다.

김정일총비서께 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의 메달과 증서 수여

(평양 주체 89년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의 메달과 증서를 수여하는 의식이 25일 로씨야 주재 조선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는 조선인민군창건 68돐을 맞으며 **김정일**동지께 새로 제정한 메달과 증서를 제일 먼저 수여해 드리였다.

모스크바전쟁로병위원회 위원장 이완 슬루하이는 메달과 증서를 전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군건설위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다.

조선인민군이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 나가리라고 확신한다.

선군정치 칭송, 기네안전상

(평양 주체 89년 5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기네안전상 쎄꾸 구레이씨 꽁데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칭송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의 군중시정책은 현 국제정세와 조선반도에 조성된정세에 맞는 매우 정당하고 현명한 정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제국주의가 있는 한 총대중시는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라고 하시였는데 이것은 매우 정당하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군대를 핵심으로 전 인민적, 전 국가적방위체계를 세우고 전체 인민이 군사를 배우고 군대를 도와 주는 기풍을 세우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령도방법이다.

각계에서 **김정일**총비서 칭송

(평양 주체 90년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각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무적필승의 천하제일명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퇴역장성 홍명기는 ≪필승강군과 천출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북의 군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은 명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신 명장중의 명장이시다.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의 군사적예지는 아무리 착잡한 군사정치상황하에서도 순간에 천리앞길을 내다보고 방략을 세워 나가시는 천재적예지이고 그이의 담력은 천만대적이 달려 들어도 끄떡하지 않고 맞받아 나가시는 필승의 담력이며 그이의 지략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련속적인 승리를 마련해 나가시는 백전백승의 지략이다.

민족미래연구모임 연구위원 홍일은 ≪신념의 기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령수의 위인상에서 특징은 대담한 작전과 천하를 움직이시는 전개력, 일단 설정한 목표는 끝장을 볼 때까지 점령하시는 완강한 실천력과 계속 전진하는 막능당의 기상이다. 이와 함께 선견지명의 지략과 뢰성벽력에도 끄떡 없는 철석의 의지와 담력, 민족 자주사상과 애병정신으로 천만군사를 일당백의 용사로 키워 대적을 맞받아 치시는 천하제일의 용병술, 천하무적의 령장의 기상 또한 그분의 특출한 천재적위인상이라 아니할수 없다.

남조선의 정치평론가 정훈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것이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였으며 서울대학교의 강 아무개는 ≪**김정일**장군은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견주지 못할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시고 무적의 최고사령관이시다≫라고 격찬해 마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있은 사진전시회를 참관한 재야인사 박경문은 흥분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김정일**령도자님의 인격과 인품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이렇듯 출중한 인격과 인품을 지니고 계시는줄은 몰랐다. 그분의 존안에는 백두의 기상과 정기, 담력과 의지가 력력히 어려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유기고가 김영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국제사회는 **김정일**령도자님을 일국의 령수로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이끄실 령수로 공인하고 있다. 나는 사진전을 보면서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자긍심을 가슴 뿌듯이 느끼게 된다.

김정일총비서 칭송

(평양 주체 90년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날 남녘겨레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 비범한 군사지략과 백전백승의 령군술로 어떤 대적이 덤벼 들어도 끄떡 없는 자위적강국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멸의 업적에 대해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 있다.

군사평론가 장명진은 미국이 왜 이북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북에 그 어느 대적과도 맞서 싸워 이길수 있는 무적필승의 인민군을 키우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세계 건군사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위대한 선군령도로 인민군을 무적의 대오로 육성하시였다. 또한 군대가 자기의 최고사령관의 주위에 일심단결되여 있다.

서울에 사는 언론인 김명산은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심으로써 주체위업완성의 군사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퇴역장성 현광혁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김정일**장군은 사상과 지략으로 이기시고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으로 쾌승만을 이룩하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명장에게는 약졸이 없는 법이다. 오늘 이북의 인민군이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고 있는것도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나는 그분의 군중시정책, 탁월한 군령도가 있기에 오늘도 민족의 안녕이 굳건히 지켜 지고 있음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 싶다.

선군정치, 인덕정치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

도미니까근로자당 위원장

(평양 주체 89년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도미니까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반 로드리게스는 귀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은 선군정치, 인덕정치로 빛나는 위대한 나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시대의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선군정치에 의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제일 무서워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조선에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화폭이 펼쳐 지고 온 나라, 온 사회가 신심과 랑만에 넘쳐 있는현실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덕정치가 안아 온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의 일심단결은 한마디로 령도자는 인민에게 덕을 베풀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 주며 인민은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고 결사옹위하는 도덕의리와 운명공동체로 결합된 가장 공고한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제국주의강적을 군사적위력으로 제압하고 시련과 난관을 일심단결의 힘으로 극복하며 전진하는 조선은 실로 위대한 나라이라고 지적하고 인덕정치가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강성대국은 영원히 번영할것입니다

서만술총련중앙제1부의장

(평양 주체 88년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 제1부의장이 글 ≪**김정일**강성대국은 영원히 번영할것입니다≫를 발표하였다.

이 글이 18일부 ≪로동신문≫에 실렸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강성대국은 영원히 번영할것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서만술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을 두고 강성대국의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옛날 대국들의 짬새에 끼워 약소국의 설음만을 안고 살아오던 우리 민족은 남들처럼 강한 나라에서 살아보고싶은 공상도 펼쳐보고 한때 동방을 놀래웠던 고구려의 강성시대도 그려보았지만 그처럼 바라는 참다운 강성대국은 겨레의 념원속에만 존재하여왔습니다. 강성대국의 리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시대에 와서 현실로 무르익고있으니 정말 장군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행복과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위엄있는 강성대국의 포성과 위력으로 천만대적을 제압하시고 우리조국을 인류의 리상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업적중의 최고업적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상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뜻깊은 쉰일곱번째의 2월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는 기필코 강성대국으로 일떠선다는 진리를 나의 체험을 통해 이야기하고저 합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 강성대국건설의 우렁찬 포성으로 지구를 울리며거연히 일떠서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장식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준마를 타고 강성부흥의 새 력사를 펼쳐가는 조국인민들의 억센 기상은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혁명적열정이 활화산처럼 세차게 끓어번지는 조국의 위용을 볼 때마다 나의 뇌리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멸의 대문자로 떠오르군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이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우리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드는것,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먼 앞날의 일도 아닙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구상을 해왔으며 그 준비를 갖추어왔습니다.≫

우리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이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뜻이였다고 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4월에 벌써 조국을 방문한 우리 총련책임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우리 나라를 강성부흥하는 초강대국으로 빛내이실 확고한 결심과 그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던 일을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하순이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상과 정치의 강국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군절에 즈음하여 조국을 군사강국으로 다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봉화를 지펴주시려고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부문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계시였습니다.

머나먼 지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조국의 해당일군에게 무려여섯차례나 전화를 걸어주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올라가집무실에서 우리 대표단성원들을 만나주려고 했는데 먼곳에 나와있기때문에 도중에 올라갈수 없으니 비행기로 빨리 오라고, 여기 하늘이 새까맣게 흐리였는데 동해안 날씨라는것이 해무가 끼면서 좋아졌다나빠졌다 하므로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수 없으니 비행기로 오지 말고 륙로나 기차로 오라고 이르시고는 또다시 해당 기관에 과업을 주었으니 특별렬차를 타고오라고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또다시 전화를 거신 그이께서는 친히 기차의 출발시간을 정해주시고 오는 도중 어느 지점에 와서기차를 세워놓고 잠을 잔 다음 4월 25일 낮 몇시에 도착하라고, 그러면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접견해주시겠다고 차근차근 일러주시였습니다. 몇명 안되는 해외전사들을 위해 특별렬차까지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의 궤도를 따라우리 총련책임일군들은 그이께서 계시는 머나먼 북방의 어느한 고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국가적인 큰 명절인 건군절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4월 25일과 26일 옹근 이틀동안에 걸쳐무려 열다섯시간가까이 저희들을 현지시찰의 길에도 함께 데리고다니시면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도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금같이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습니다.

더우기 내가 제일 탄복한것은 그이께서 평양으로 달리는 렬차에서 오랜 시간에 걸치는 가르치심을 주실 때 조국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할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것이였습니다.

때로는 조국의 어려운 실태도 기탄없이 들려주시고 때로는 세계의 정치정세와 경제형편, 제국주의의 모순과 경제적리해관계를 종횡무진으로 분석하시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 혁명의 당면과업과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나라를 부흥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건설할 명안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전기문제, 원유문제, 과학기술문제, 알곡과 감자농사문제, 록색혁명문제, 환경보호문제 등을 리상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최강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만리혜안의 예지와 담대한 배심, 로숙하고 세련된 지략 앞에서 나는 격정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벌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준마가 세기를 주름잡으며 조국의 대지우로 질풍같이 내달릴 오늘을 내다보시고 그 도약대와 터전을 착실히 준비하고계시였다고 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원한 구상속에는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목표와 설계도도 제2의 천리마대진군으로 내달릴 비약적인 전진속도에 대한 방안도 다 들어있었습니다.

조국땅우에 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를 담은듯 평양으로 쏜살같이 달리는 렬차의 기적소리는 산야의 고요를 깨뜨리며 메아리쳐울려갔습니다.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차의 동음은 마치도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강성대국의 높은 언덕으로 치달아오르는 조국의 기상을 그대로 상징하는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밤 달리는 기차안의 피로에도 아랑곳없이 부강번영할 조국의래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에 넘치신 안광에도 자신의 드놀지 않는 결심과 의지를 강조하시는 그이의 매혹적인 손짓과 몸가짐에도 끝없이 부흥할 강성대국의 미더운 모습이 비껴있었습니다.

세계속의 조선을 보시며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러 나는 마음속으로 무르팍을 치며 웨쳤습니다.

(아, 생각만해도 가슴부풀어오르는 강성대국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강성대국의 상징이시다. 과시 천하제일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된 나는 어제날의 약소국을 오늘날의 강성대국으로 빛내여주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앞에 깊이 머리를 수그리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세상에 으뜸가는 강성대국으로 건설하려는 원대한 뜻을 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10대의 학창시절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태양의 위업을 빛내여갈 웅지와 결심을 안으시고 온 우주를 향하여 ≪조선아 너를빛내리≫라고 소리높이 선언하신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아 너를 빛내리≫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렇게 세상을 향해 조선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조선의 국력을키워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실 결심을 터치실 때 그이의 가슴속에 안겨온것은 사상과 정치로 위대하고 군사와 경제로 강성부흥하며 문화와 륜리도덕으로 아름다운 천하제일의 강성대국이였다고봅니다.

바로 그때 그려보시던 강성대국을 당장 건설하시려고 우리 총련일군들앞에서 그렇듯 휘황찬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니 우리 해외전사들의 가슴은 세찬 격동으로 흥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흥분은 지난해 9월 공화국창건 50돐을 앞두고 주체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를 뒤흔들며 창공높이 날아올랐을 때 절정에 이르렀던것입니다. 지난해 4월에 강성대국건설의휘황한 전망을 받아안은지 불과 5개월만에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로 강성대국의 첫 포성을 들었으니 어찌 우리 재일동포들의 가슴이 격정으로 파도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충격은 올해 조국에서 울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돌진나팔소리를 듣고 더없이 컸던것입니다.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새해 첫 아침에 조국에서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개시한 소식을 듣고 ≪정말 새힘이 솟는다. 역시 우리 장군님은 주체강성대국의 태양이시다≫라고 모두들 환성을 올리였습니다. 비단 우리 해외동포들만 놀라고 흥분한것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조국이 높이 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구호는 7천만겨레와 온 인류를 다시한번 격동과 찬탄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남조선의 출판물들도 ≪북이 경제재건의 최종목표를 강성대국건설에 두고있다. **김정일**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구호로 자리잡은 강성대국건설론은 이미 달성한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건설만 이룩하면 실현될수 있는것≫이라고 썼는가 하면 ≪북의 경제는 적극공세로 완전히 전환되였으며 경제강국건설에로 가고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존귀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조선은 반드시 강성대국으로 큰소리를 치며 21세기에 들어설것이라고 한결같이 격찬하였습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나라와 민족도 위대하고 강성해진다고 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일떠세우시는 우리의 강성대국은 모든 면에서 강성하고 부흥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입니다.

지나온 력사의 갈피에는 령토대국이나 인구대국이라고 뽐내는 나라도 있었고 현대문명과 더불어 흘러온 현세계에는 공업대국이나 군사대국이라고 우쭐대는 나라들도 있지만 사상과 정치의 대국을 떠난그 어떤 대국도 참다운 의미에서 보면 ≪사이비대국≫이나 ≪절름발이대국≫이라고밖에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가시는 우리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사상과 정치, 군사와 경제, 문화와 도덕의 모든 면에서 최상의 위력을 지닌 천하유일의 강성대국이며 21세기에 세계가 맞이할 인류리상국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꿈속의 공상도 아니고 먼앞날에나 있을 어렴풋한 신기루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은 이미 사상강국으로, 정치대국으로, 군사강국으로, 과학기술대국으로, 우주강국으로, 주체문명국으로, 도덕과 의리의 왕국으로 그 존엄과 명망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경제목표만 달성하면 우리 조국은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라 마침내 인류가 그처럼 념원하던 완성된사회주의강성대국의 참모습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강성대국의 포성과 위력 앞에서 자기 파멸의 무덤을 내다보며 기절초풍한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련합세력으로 그 앞길을 막고 그 존재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최악의 발광을 거듭하고있습니다.

몇해째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하면서 갖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형편과 전도를 두고 조선이 조만간에 무너질것이라고 적들은 하루도 입방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땅에서 매일같이 불어대는 그 무슨 ≪위기≫설과 ≪붕괴≫설만 하여도 다사스럽기이를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보란듯이 일떠서서그 누구도 엄두조차 내지 못



하는 강성대국의 령마루로 치달아오르고있으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흐뭇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령마루는 아득히 먼 지평선너머에있는것이 아니라 눈앞의 산현실로 가까이 바라보이고있다고 나는 확신성있게 말하고싶습니다.

조국의 운명속에 총련의 운명이 있고 조국의 기상속에 총련의 기상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어려움속에서 강성대국으로 솟아오르듯이 우리 총련도시련속에서 강성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빛나고있습니다.

언제나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주체위업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래전에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실 때 총련도 강성총련으로 다지실 심오한 뜻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4월 어느날이 였습니다.

그 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건만 만사를 다 제쳐놓으시고 오랜 시간 조국을 방문한 우리 총련책임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신 그이께서는 총련을 강성대국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심원한 구상을 펼치시면서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오늘의 정세하에서 어떤 사상과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총련조직을 강화발전시켜 애국운동을 벌려나가겠는가 하는 그 귀중한 가르치심들은 다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 낸은 명안중의 명안들이였고 지침중의 지침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총련이 조국의 대진군에 발맞추어 조성된 어려운 난국을 뚫고 강성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준 위대한 지침은 현시기 저희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기치이고 불멸의 대강이 였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인정과 웃음도 주시며 휴식도 주무심도 잊으시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부신 안광과 정력과 패기에 넘치는 우렁우렁한 음성에서 저희들은 금시 강성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억세게 전진하는 총련의 모습을 보는듯하여 벅차오르는 흥분과 환희를 억제할길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지금도 강위력한 애국조직으로 다져진 총련이 이제 또 강성부흥의 나래를 펴고 솟구쳐오를 때 그위력과 기상은 얼마나 대단한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이 길로 나간다면 총련은 더 강성해질것이다) 생각만하여도 가슴부풀어오르고 필승의 신심과 새 힘이 온 몸에산악같이 솟았습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와 숭배의 정이 용암처럼 끓어오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차례 만나뵈왔지만 그때처럼 그이의 천출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고 탄복해보기는 처음이였다고 봅니다. 위인은 역시 천리혜안으로 위대하고 방략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총련을 강성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은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총련결성 40돐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도 담겨져있고 총련 본부와 지부, 조청과 청상회, 녀맹과 금강산가극단에 보내주신 강령적인 가르치심들에도 뜨겁게 맥박치고있다고 봅니다.

필승의 기치인 위대한 사상을 주시고 만능의 무기인 애국의 신념을 주신 숭고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비로소 총련은 조국과 더불어강성과 번영의 한길로 줄달음쳐나갈수 있게 되였던것입니다.

총련은 위대한 사상과 충성의 신념으로 강성하고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강성부흥하게 하는 제일보검이 신념이라면 해외교포조직에 있어서도 사상과 신념은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최강의보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총련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이 꽉 들어차고 일편단심 장군님만 믿고따르는 장군님의 해외교포조직입니다. 총련의 사상은 **김정일**사상이고 총련의 정신은 **김정일**절대숭배정신이며 총련의 신념은 **김정일**제일주의 신념입니다.

말을 해도 **김정일**장군님의 뜻으로 말하고 노래를 불러도 **김정일**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만세를 불러도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부르는 총련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정말 강합니다.

언젠가 어느 한 재일동포는 ≪내가 현세계에서 제일 숭배하는 위인은 **김정일**장군이시고 제일 신봉하는 리념은 **김정일**사상이며 제일살고싶은 세상은 **김정일**세상이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이며 제일 사랑하는 꽃은 **김정일**화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평범한 재일동포의 이 진정에 넘친 말은 로세대로부터 새 세대에 이르는 총련의 모든 일군들

과 동포들의 정신상태를 대변하는 사상의강자, 신념의 강자들의 심장의 목소리입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내외반동들의 악랄한공세가 매일 매시각 집요하게 벌어지고 온갖 어지러운 사상조류가홍수처럼 범람하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도 총련은 사상의 강경보루로, 신념의 제일성새로 끄떡없이 솟아있습니다.

총련은 일심단결의 대오로, 힘있는 애국대오로 강성하고있습니다.

비록 세대는 바뀌여도 1세들로부터 3세, 4세의 새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뜻으로 뭉치고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며 하나의 발걸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로 줄달음쳐나가고있는것이 오늘 총련대오의 자랑스럽고 강위력한 참모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세대의 교체와 더불어 3세, 4세 동포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시기에 새 세대들을 애국의 길에서 떼여내여 재일조선인운동의 대를끊어놓고 총련대오를 허물려는 내외반동들의 책동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습니다. 하건만 그 어떤 ≪동화바람≫이나 ≪귀화바람≫도 그무슨 ≪참정권운동≫도 일본의 거치른 난바다에서 애국의 쇄빙선을 타고 주체의 항로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총련의 대오를 조금도 흔들어놓거나 흩어지게 할수 없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결합된 일시적인 단합은 깨여질수 있어도 충성과애국의 뜻으로 뭉친 총련의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깨뜨릴수 없다고봅니다.

이처럼 단결이 강한 총련이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기에 총련이라는 거목은 사나운 바람속에서도 더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습니다. 하기에 일본의 한 정객은 ≪성격과 취미가 다른 사람들이 몇몇이모여도 각양각색이고 천태만상입니다. 하지만 총련동포들만은 주체와 애국이라는 결합정신이 강하기때문에 수십만이 모여도 노랗지도 희지도 않은 붉은 일색입니다. 조선식으로 말하면 일심동체입니다. 그러니 총련이 강할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총련은 무비의 담력과 불굴의 투지로 강성하고있습니다. 정의의 진로를 헤쳐나가는 대오의 앞길에는 시련도 많고 가시덤불도 많습니다. 최근시기 적들은 우리 조국과 총련이 어려움을 겪는기회를 틈타 공화국에 앞서 총련부터 허물어보겠다고 기를 쓰고 달려들었습니다.

특히 내외반동들이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그 무슨 ≪탄도미싸일≫이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반총련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린 지난나날은 재일조선인운동력사상 가장 엄혹하고 힘겨웠던 시련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국력과 과학기술의 최고상징인 인공지구위성까지 보기좋게 쏴올려 우주강국으로 존엄을 떨친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하고 불안과공포를 느낀 일본반동들은 그 분풀이로 공화국의 작은 집인 총련을 없애버리려고 전대미문의 폭압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던것입니다.

사태가 너무도 험악하여 총련을 지지하고 동정하던 일본사람들도 우려를 표시하였고 반동들은 이쯤되면 조선총련은 망할것이라고 입빠르게 쾌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총련은 적들이 바라는것처럼 결코 망하지도 주저앉지도 나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조국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승리하였듯이 총련은 내외반동들의 탄압말살책동을 과감히 물리치고 승리하였던것입니다.

조국이 이길 때 총련도 함께 이긴 이 력사적승리, 무너진다던 조국과 총련이 도리여 강성부흥하고 이긴다던 적들이 거꾸로 여지없이패한 이 전화위복의 기적은 오로지 **김정일**강성대국, 강성민족만이 창조할수 있는 력사의 새 기록입니다.

오늘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주체강성대국의 해외공민된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넘쳐 애국의 준마를 타고 강성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조국이 **김정일**강성대국으로 세계의 앞장에 거연히 솟아오를 때 우리 총련도 장군님의 향도따라 **김정일**강성총련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굳게확신해마지 않습니다.

김정일강성대국은 영원히 번영할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면서 천하제일의 사상과 빛나는 령도로 주체의사회주의조선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고 **김일성**민족을 강성번영의 희망찬 새 세계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강성대국의 상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일장군

로동신문 정론

(평양 주체 87년 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15일부 ≪로동신문≫은 ≪**김정일**장군≫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정론을 실었다.

정론은 운명의 수호자 **김정일**장군이 우리앞에 서계시며 장군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면 최후승리의 만세를 부르리라는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하고 존엄있으며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론은 수령에 대한 모든 호칭가운데서 우리가 **김정일**장군이란 부름을 가장 사랑하며 즐겨부르는것은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우리 수령의 절세의 위인상이 있으며 그 어느 령도자도 이루지 못한 우리 장군의 절세의 업적이 있기때문이라고 썼다.

정론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우리 수령은 장군이시다.

잠결에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이 신성한 감정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애국가 넘치고 람홍색공화국기 펄펄 휘날리는 내 조국이 있다는 신념이며 배움의 종소리 넘치는 교정과 귀여운 아들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있고 우리의 존엄과 영예, 기쁨과 안전이 있다는 크나큰 긍지이다.

김정일동지는 우리 운명의 수호자이시다.

적들의 사격권내 중심에 거연히 서시여 제국주의련합과의 정면대결에서 언제나 적의 급소에 강타를 안기시며 통쾌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여 적장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드시는 무적의 장군 **김정일**동지, 우리앞에 서계시는 운명의 수호자 **김정일**장군을 우러르면서 우리는 장군중의 진짜 장군은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이며 수호중의 진짜 수호는 피와 주검이 없이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는 수호임을 깨닫게 되였다.

백두명장가문에서 탄생하시여 유명한 장군성지 백두산에서 성장하시면서 10대이전에 벌써 장군으로 호칭되신 우리 장군의 인생길은 첫발자국부터 이 시각까지가 조국수호, 인민수호, 사회주의와 인류수호로 관통되여있기에 만민이 그이를 장군이라고 부르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합법칙적인것이 아닌가.

우리의 장군은 사랑의 장군이다.

우리 장군의 무한대한 수호력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크기이며 **김정일**장군의 무적의 수호력은 원쑤에 대한 증오에 정비례한다.

김정일장군

우리에겐 그 이름이 어머니란 말보다 더 귀중하다. 태줄을 끊어준 어머니보다 운명을 지켜주는 장군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



김정일장군

러시아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즈노브르

김정일!
그분은 출렁이는 바다 위에 솟은 태양
그분은 거룩한 위업으로 자랑차고 빛나는 예지로 강하신 분
화강석보다 강철보다 억세이신 분, 젊음에 넘치신 **김정일**원수
그분은 걸출한 영장중의 영장
내 소리 높이 노래하련다
김정일장군의 위대한 역사를

김정일!
그분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계승자
그분은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서신 분
세계의 머리 위에 더 높이 치켜드셨다. 불패의 주체사상의 횃불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 영도를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의리 앞에
수정주의자들과 배신자들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쥐구멍을 찾는다
행복한 조선민중이여
그토록 **김정일**장군을 따르며 세계가 그처럼 감격해 마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니랴
김정일동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함선, 주체사상의 함선, 조선식 사회주의의 함선에 방향타를 잡고 계신다.
나는 확신하노라!
백전백승의 **김정일**원수님의 손길 아래, 세계에서 첫 공산주의는 바로 조선 땅에 먼저 건설될 것이라고

지구여, 자랑하라!
위대한 영장, 위대한 영수 **김정일**원수를!
그분은 조국의 충직한 아들, 위대하고도 자유로운 넋의 열렬한 체현자, 이 나라의 가장 정직한 국민
조선이여 자랑하라! 그리고 아끼라!
슬기로운 예언과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 강철의 영장, 장군중의 장군이신 조선의 **김정일**동지를

그분께서 지니신 위인의 기질
그것은 지도를 들여다 보시는 아버님의 무릎에서 키우신 것.
그분께서 어린시절 제일 선참으로 읽히신 글도, 조선지도와 붉은 화살표들로 가득찬 작전도 위에 새겨진 글이었다.
전후시기 그분을 애모한 것은 어머님의 사랑이 아니었거늘
그것은 아버님의 *** 포연에 그슬린 아버님의 거칠어진 손

나는 보노라
나의 조선이여, 아메리카는 결코 그대를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된 핵문제를 둘러싼 회담에서도
김정일장군께선 미국의 장단에 춤추는 국제원자력 기구를 명철한 예지로 보기 좋게 타승하셨다.
김정일장군께서 계시기에 양키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더라.

낙심하지 마시라!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이여.
더욱더 용감하라!
이제 오래지 않아 **김정일**장군께서 부르주아지들을 저 대양 깊이 수장해 버릴 것이거니

김정일!
당신은 두려움을 모르시는 사회주의의 수령
제국주의 개들의 **속에서도 홀로 남으셨을 때
당신께선 나아가시었다. 공격전에로
전세계 근로자들의 정의의 위업을 위해 당신께서는 영장의 거대한 전개력을 가지시고
야수화되고 탐욕스러우며 슬픔과 억압만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를 비호하는
쓰레기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시었더라

김정일!
당신께선 민중들이 나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변절자들과 배신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는 논문들과 저작들엔 력력히 맥박친다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가장 훌륭한 진리가

김정일!
당신은 철의 의지를 지니신 영장
행복한 공화국과 위대한 주체사상의 수령
당신은 이론가, 실천가, 위대한 수호자
당신은 세계적인 위인, 백두산의 빛발
당신은 인덕의 화신
당신은 조선만이 아닌 모든 나라 근로하는 사람들의 기쁨
당신은 가장 현명하신 분, 가장 복되이신 분
김정일동지는 어머니와 같이 자애로우신 분
그분께서는 잠결에서 조차 민중의 숨소리를 가려 보신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분의 배려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의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만약 당신이 묻는다면, 잠도 휴식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나는 공산주의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답하리라
그분은 세계사회주의의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이시다! 라고

김정일!
그분은 인간의 인정미의 최고의 체현자
그분은 민중의 자유와 평등, 권리의 상징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선량한 민중의 어버이시어라

세계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자
그분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전해가자
그분은 21세기의 영도자, 주체사상의 빛나는 태양이시어라
사람들이여 기억하시라!
우주는 태양으로 빛나고
사회주의의 길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거니
그것은 자유로운 조선의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어라
비겁분자들아!
너희들은 알아야 하리
이제 곧 역사는 네놈들을 심판하고 징벌하리라

위대하신 **김정일**영장의 사상과 위업이 승리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노라
소리 높이 외치고 싶노라
위대하시고 백전백승하시는
김정일장군! 만세!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새 세기 들어 더욱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창당 56돌을 맞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향도 하에 백전백승하며 혁명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쌓아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온 지난 56성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며 주체위업완성으로 나아가는 전인미답의 혁명노정이었으며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전대미문의 난관을 돌파하여온 영광찬 승리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혁명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혁명사에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으로 창건하시었으며 이후 주체성이 강하고 광범한 대중지반을 갖추며 영도의 계승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역량을 강화하고 그 정치적 기능을 제고하는 주체의 원칙을 선행하시며 두 제국주의와의 준엄한 전쟁과 여러 단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히 영도하시며 역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ㅌ.ㄷ≫이래 조선노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었으며 조선노동당의 모든 영도업적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역사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전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을 떠난 조선노동당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시고 조선노동당과 전체민중의 일심단결을 어버이수령님을 향한 충효의 결정체로 다져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건설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전례 없는 불후의 대공적입니다.

천재적 사상가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계승발전시키시고 혁명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고 조직사상수준이 최상에 이른 강위력한 당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이자 군이며 군이자 당이라는 독창적인 혁명철학으로 군을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 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심으로써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선군혁명의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당과 군을 혁명의 2대 기둥으로 삼으시고 선군정치로 혁명을 개척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은 오늘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도 한치의 동요 없이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는 혁명의 금성철벽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위에 이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찬탄과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등대로 거연히 솟아 웅장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조국통일의 비약적 국면을 창조하시는 한편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시며 90년대 총포성 없는 조미대결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조선노동당 창당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시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노련한 정치외교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장장 20여일간의 러시아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조미대결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대미포위망을 완성하시었으며 더불어 조선노동당과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도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으시었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가 선군영도와 신묘한 전략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는 한편 유일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국제적인 수령, 향도의 태양으로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인 사상과 비범한 전략, 고매한 덕망, 불멸의 위업으로 21세기 자주시대를 거침없이 개척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승리만을 거듭하는 조선노동당이야말로 가장 존엄 있고 위력한 당이요, 노동당시대야말로 가장 영광 넘치는 위대한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은 이남의 변혁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도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의 마음이 미 제국주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전당과 전민을 주체의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영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며 장군님의 권위가 날을 따라 비상히 고양되고 나아가 절대화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경사스런 당창건 56돌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장군님의 위대성과 전위당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선행하는 한편 당면한 전술단계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적으로 세련되게 구현하며 반미반이회창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겠다는 열화 같은 투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백전백승 전위당이 있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필승의 투쟁전략이 있기에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온 겨레와 인류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0월 10일

서울